

3-1-2005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도

Yong Chi Chung 정용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정용치,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도."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RECOVERY OF THE IDENTITY OF A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OVEMENT

written by

YONG CHI CHU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Young Shin Kim

Moon Sang Kwon

Seyoon Kim

March, 2005

**RECOVERY OF THE IDENTITY OF A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OVEMENT**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YONG CHI CHUNG

MARCH 2005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도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영 신 교수

정 용 치

2005년 3월

Recovery of the identity of a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ovement
Yong Chi Chung
Doctor of Ministry
200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espite her relatively short history, Korean Church has made unprecedented growth in numbers. But this quantitative growth has not always brought the positive results to Korean Church. While she was satisfied with her outstanding achievement, Korean Church began to be less concerned about the people in the blind spot of pastoral care. She has also failed to teach her members how they should live as the disciples of Jesus and to meet their direct need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which she is currently faced, an alternative way of pastoral ministry is highly demanded.

We believe that house church ministry is one of such alternatives. Unlike the circuits or cell groups constituting the substructure of the church, the house churches as 'a small church within the church' perform the very functions which we expect from a church: worship, education, mission, fellowship, service, and sharing.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house church ministry is an alternative way of pastoral ministry to restore the original shape of the Early Church and to make Korean Church grow healthy. For this, we sha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churches which have been growing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The present writer's five-year experience with house church ministry at Van Nuy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has also become a valuable resource for this study.

This study is comprised of the six chapters. In Chapter 1, the purpose, methodology, and scope of this study will be stated. In Chapter 2, we shall explore the biblical foundations of the house church and survey its historical development. House church can be traced back to the Early Church as it is written in the New Testament. And the circuits which were developed in the eighteen century Methodist movement can be considered as a revived form of house church. We shall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ircuits and their significance to the pastoral ministry for the present time. We shall also survey the churches which are actively involved with house church ministry -Korean, Korean-American, and American- and what impact house church ministry has had on these churches. In Chapter 3, special attention shall be given to house church ministry at Van Nuys Korean UMC. We shall describe the struggles and difficulties we have had in launching house church ministry at this church and making a shift from a traditional paradigm of pastoral ministry to a new at this church. In Chapter 4, we shall state the purpose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house church ministry at Van Nuys Korean UMC which has been articulated for the past five years. In Chapter 5, we shall discuss the specific changes which house church ministry brought to Van Nuys Korean UMC and problems which it needs to overcome in the future. In Chapter 6, we shall sum up what has been discussed thus far and make a suggestion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is study.

Theological Mentors: Young Shin Kim,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현 사

이 논문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글

한국과 미국에서 30년이 넘게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다양한 사역의 현장을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부터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사역에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과 특히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해 주셨던 평신도 지도자들인 목자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모델이 되어 주셨던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여년의 미국 이민 목회를 접고 뜻하지 않게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겨올 때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세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영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서 용기를 불러 넣어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와 격려도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나이 든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용기를 주었던 아들 세광이 내외와 딸 주영이 내외에게도 감사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육 훈련원에서 같이 사역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사역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4년 2월 정용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2
제 2 장 가정교회의 배경에 대한 고찰	4
제 1 절 가정교회의 성서적 배경	4
1. 가정교회의 구약적 배경	4
2. 가정교회의 신약적 배경	5
가.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	6
(1)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교회	6
(2) 바울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교회	7
나. 초기 가정교회의 역할	8
(1) 예배공동체	9
(2) 양육과 훈련	9
(3) 구제와 봉사	10
(4) 성도의 교제	11
(5) 선교의 거점	11
제 2 절 가정교회의 신학적 배경	13
1. 가정교회의 정의	13
가. 속회(구역)와 가정교회의 차이점	14
나. 순모임과 가정교회의 차이점	15
2. 가정교회의 필요성	15
3. 가정교회의 역할	19
가. 성도의 교제	20
나. 양육과 훈련	21

다. 제자화 선교	22
제 3 절 가정교회의 역사적 배경 초기 감리교회와 가정교회	23
1. 감리교회의 시작	23
가. 역사적 배경	23
나. 존 웨슬리와 감리교	25
2. 존 웨슬리와 감리교 소그룹	28
가. 연합신도회(United Society)	29
나. 속회(Class Meeting)	30
다. 신도반(Band)	31
라. 선발 신도반(Select Society)	32
마. 참회자반(Penitents)	33
3. 감리교회에서의 속회의 역할	33
가. 은혜의 수단	34
나. 영적 교제의 장	35
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의 장	36
라. 신앙 훈련의 장	36
제 4 절 현대교회와 가정교회	38
1. 외국교회	38
가. 인도네시아 아바러버(Abbalove)교회	39
나. 미국 휴스턴 Touch Family 교회	40
2. 이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41
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41
나. 얼바인(Irvine) 베델한인교회	43
다. 서울 목산 침례교회	43
제 3 장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과정과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	45
제 1 절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상황	45
1. 교회 개척기	45

2 부임 전의 교회 상황	46
3 부임 후의 교회 상황(2003년까지)	48
제 2 절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문제점	49
1. 평신도 지도자들의 의식	50
2 교회 조직의 비효율성	52
3 평신도들의 소극적 참여	53
제 3 절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와 교회론 재정립	55
1.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56
2 이민교회의 현실과 정체성 회복(미국을 중심으로)	58
3 가정교회의 중요성	62
제 4 장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와 가정교회	65
제 1 절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	65
1. 가정교회와 교회의 정체성 회복	65
2 건강한 교회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정교회	67
제 2 절 가정교회 조직과 구성	68
1. 가정교회의 기본 조직	68
가.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	68
나. 가정교회 지도자 선정	69
다. 목장(가정교회) 조직	70
2 가정교회의 구성인원	71
3 가정교회의 지도자(목자)	73
제 3 절 가정교회 목적과 훈련	75
1. 가정교회의 목적	75
2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77
3 가정교회 운영지침	80
제 4절 가정교회 사역의 실제	83
1. 예배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83

가. 가정교회 예배의 중요성	83
나. 가정교회에서의 예배	85
2 교육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87
가. 가정교회의 교육적 사명	87
나.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가정교회	88
3 친교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90
가. 만남의 장으로서의 가정교회	90
나. 치유의 장으로서의 가정교회	92
4 선교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93
가. 가정교회의 선교적 사명	93
나. 선교 동역자로서의 가정교회	95
5 봉사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96
가. 섬김으로서의 봉사	96
나.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봉사	98
 제 5 장 가정교회를 통한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 회복	100
제 1 절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의 긍정적 변화	100
1. 가시적 변화	100
가. 양적 성장과 교인들의 역할증대	100
나. 교회 조직의 효율성	102
2 비가시적 변화	103
가. 건강한 교회로의 변화	103
나. 제자로서의 의식변화	104
제 2 절 가정교회의 문제점	105
1. 가정교회 전환으로 인한 갈등	105
2. 평신도 지도자(목자)의 한계	106
3. 경쟁과 집단 이기주의화	107
4. 가정교회 운영의 한계	108

제 3 절 이민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안	109
1.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제안	109
2. 가정교회로의 전환	110
제 6 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5
Vita	11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교회의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초기 웨슬리의 속회 운동을 모델로 하는 가정교회를 교회 안에 정착시킴으로 평신도 지도자의 개발과 평신도들의 선교에 참여도를 높여 교회로 하여금 건강하면서도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의 구경꾼 교인들을 위해 교회가 가지는 과제는 어떻게 하면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민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은 목회자 한 사람이 다수의 교인들을 돌보고 있으므로 성도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 채,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난맥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목회자의 손길이 닿지 않음으로 교인들을 잘 돌보지 못하였다는 것과, 교인들이 그들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의 사역의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자기가 속한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소속감을 갖고 신앙성숙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교인들이 참 제자의 도를 다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회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목회의 구조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기 위해, 소그룹 활성화의 필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그룹으로써의 가정교회를 새로운 목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1998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동안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하여 가정교회 사역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장점은 확대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가정교회 모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정교회는 구조상으로는 속회(구역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속회는 아니다. 가정교회는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형태이다. 즉, 교회가 선교, 교육, 봉사, 예배,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존재이유가 있다면 가정교회 역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신도 층에 훈련된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재량권을 위임해 줌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회가 독자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긴 하지만 지역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독립된 하나의 교회는 아니다.

가정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지역 교회에 속하면서도 사역의 영역을 확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 주도형의 사역 형태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공동 사역 형태를 가진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사장되고 있는 평신도들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목회 측면에서는 성도 개인에 대한 양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는 가정교회가 어떻게 미래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일 될 수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가정교회의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실제 가정교회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교회들과 한인 이민교회 및 한국교회들의 예에서 가정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의 가정교회 사역을 토대로 가정교회의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 운영의 과정, 운영의 한계, 그리고 가정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성서에서 먼저 그 배경을 찾고자 하였다. 구약에서는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으로써의 교회의 모습을, 신약에서는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재했던 가정교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서적 기초를 토대로 한 가정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과정에서 특히 18세기 영국 교회가 잃어가고 있던 생기를 회복하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웨슬리가 일으켰던 감리교 운동의 속회가 오늘날 가정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교회마다 어떤 효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가정교회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교회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단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의 가정교회 사역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자가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직접 가정교회를 실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준비과정, 가정교회로의 전환, 목사 선정, 가정교회의 운영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정교회를 통해 얻게 된 가시적·비가시적 효과, 가정교회 운영의 한계에 대해서도 논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가정교회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구조와 섬김과 돌봄이 결핍된 현대 목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평신도들의 은사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를 극복할 수 있고, 교인들 스스로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며, 소그룹인 가정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섬김과 돌봄이 가능하며,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조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

가정교회 배경에 대한 고찰

제 1 절 가정교회의 성서적 배경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구조의 형태를 가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직접적인 모델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인 형태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가정교회라는 언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전거(典據)가 되는 공동체 조직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반면, 신약 특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언급된 초기 기독교 교회는 그 형태에 있어서 현대의 가정교회의 직접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신약에 등장하는 가정교회의 구체적인 구조와 형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신약의 가정교회가 현대 가정교회의 구조 형성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의 예시를 찾아봄으로써, 현대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가정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교회의 구약적 배경

칼 조지(Carl George)는 구약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통해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미래교회를 메타(meta)¹⁾교회로

1) 풀러(Fuller)신학교에서 수년간 교수로 사역한 선교 인류학자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미시이론(micro theory)과 거시이론(macro theory)에 이어 메타이론(meta theory)으로 넘어 가는 논리적 범주를 '메타'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로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의미의 '메타노이아'(metanoia)에서 비롯된 것으로 '변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규정하면서 그 특징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시한 대안에서 찾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메타교회는 가정을 기초로 하는 소그룹, 이 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 지도자, 담임목사를 통한 평신도 목회자들의 지도와 훈련,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있는 교회이다.²⁾

그렇다면 이드로의 제안은 무엇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출 12:37; 38:26; 민 1:46; 2:32; 11:21; 26:51). 여기서 계수에서 제외되었던 여자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합한다면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생활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만큼 지도자 모세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거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드로는 이러한 모세의 무거운 책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것은 천 부장, 백부장, 오십 부장, 십 부장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이었다(출 18:17-27).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던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리를 세분화하였고, 그 기본 단위는 10명이었다. 모세는 사람수에 따라 재덕을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들을 선발하여 책임을 맡김으로써, 보다 수월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세 한 사람 중심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이드로의 제안은 구조적으로 소그룹 형태라는 점에서 가정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

2. 가정교회의 신약적 배경

가정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독교 초기에서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신약성서에 115번 나타나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는 히브리어 ‘카할(kahal)’을 번역한 것으로, 그 뜻은 ‘부른다’는 말에서 비롯되었으며, “의논하기 위해 소집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시내

Carl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80.

2)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15-19.

산에서 모세가 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모인 그룹을 ‘카알’³⁾이라고 하였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회중’으로 번역하였다.⁴⁾ 그리고 이 단어가 비종교적으로 사용될 때는 ‘전쟁을 위한 군사모임’(삼상 17:47; 대상 28:14)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루이스 벨코프(Louis Berkhof)는 이것을 일정한 장소에 모인 신자들, 곧 지 교회(행 5:11; 11:26; 고전 11:18; 14:19, 28, 35; 롬 16:4; 고전 16:1; 갈 1:2; 살전 2:14 등), 개인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롬 16:23; 고전 16:19; 갈 4:15; 몬 2장 등),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행 9:31), 일반적 의미로 전 세계의 흩어진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고전 10:32; 11:22; 12:28; 엡 4:11-16),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엡 1:22; 3:10; 21, 5:23-25; 27, 32; 골 1:18, 24)로 그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⁵⁾ 신약성경에서 ‘에클레시아’가 갖는 다양한 의미 가운데는 ‘가정교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가.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

(1)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정교회

타이센(Thiessen)에 의하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사건 이후이다.⁶⁾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형태는 예수의 승천 후, 다락방에서 모였던 공동체였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다락방이 있는 한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의하여 시작되었던 것이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후(행 2:1, 2)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구조적 형태는 가정집을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므로(행 1:13-15) 예루살렘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행 1:13-14; 12:12).⁷⁾

3) 신 5:1; 왕상 8:14.

4)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26.

5) Louis Berk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813.

6) Henry C. Thiessen,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635.

7) 조선혁, “한국 감리교회의 속회에 관한 연구” (Th. M. diss.,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67), 11.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정교회의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후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 집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⁸⁾

사도행전 16장 14-16절에 등장하는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해 주었고, 이로 인해 루디아의 집은 바울사역의 거점이 되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행 20:20)라는 사도행전 20장 20절 역시 바울의 전도 거점이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이처럼 가정 교회를 거점으로 그의 사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예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열심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였으며, 이 가정교회가 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2) 바울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는 그가 세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을 따라 가정교회 형태로 만들어 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블롬(J. Blohm)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는 그리스도적 공동체의 모든 요소들이 있으며 더욱이 그것은 필수적으로 거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말뜻 그대로 ‘에클레시아’이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은, ‘개체교회들의 합이 전체 공동체의 교회가 아니라, 각 개체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전체 공동체인 교회를 나타낸다.’⁹⁾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의 예로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늬바의 집, 빌레몬의 집, 스데바나의 집, 뵈뵈의 집 등을 들 수 있다.

바울서신에는 이처럼 분명하게 여러 형태의 가정교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8)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37.

9)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33-35.

바울은 로마서 16장 3-5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중심으로 이 부부를 지도자로 하는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눅바의 집에 대해서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눅바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눅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 4:15).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몬 1:1-2)라고 언급한다. 이 구절 역시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¹⁰⁾

바울은 당시 성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그 외에도 여러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은 스데바나 집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겐그레아 교회에서 바울의 후원자였던 뵈뵈(롬 16:1-3)의 집 역시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여행자들의 숙식을 위한 곳으로 제공되었다.¹¹⁾

이처럼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가정교회는 신자들의 신앙과 훈련을 위한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초기 기독교 교회의 가정교회의 형태와 현대교회와 같은 조직교회의 형태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신앙을 위한 모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초기 가정교회의 역할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들은 현대 교회들과 같은 교회로써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행정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며, 모이는 수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모임은 많게는 4, 50명 정도, 적게는 10여명 안팎으로 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행 2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통과 제도에 매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소그룹 형태인 가정들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다.¹²⁾

1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2000), 40-41.

11)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42.

그렇다면 이들 가정교회는 어떠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2-47절은 초기 기독교 교회로서의 가정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¹²⁾

(1) 예배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 모인 가정교회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들의 모임에는 찬송과 설교가 있었고, 방언과 통역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전 14:26-33). 당시의 예배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예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가정교회에서의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예배였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그의 저서 *1세기 예배 모습*에서 당시 가정에서 모이는 신앙공동체는 자발적이었으며 누구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¹⁴⁾라고 말한다. 가정교회에서의 예배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행 2:43) 찬양과 기도, 성찬,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였다(행 2:42). 이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의 예배가 현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예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 교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확신하는 예배였던 것은 분명하다.

(2) 양육과 훈련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행 2:41-42).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훈련을 행하였음을 보여준다. 훈련을 통한 양육과 기도, 설교, 성찬,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는 새로운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공동체 구성원이 된 성도들에게 신앙

12)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43.

13) Ibid., 45.

14) Robert Banks,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1), 25.

의 성숙을 가져다주었다.¹⁵⁾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사도들이 가정교회를 직접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 가정교회의 지도권이 대부분 평신도들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가정교회들은 이들 유능한 평신도들의 지도 아래 있었던 것이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권고하거나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신앙과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보았다. 그뿐 아니라 남성이 주도하던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행 16:14-15, 40; 롬 16:1-4; 고전 1:11; 16:19; 골 4:15; 요일 3:11-18).¹⁶⁾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사도들과 평신도들의 공동 사역의 장이 되었다. 이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공동사역이라는 점에서 현대 가정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3) 구제와 봉사

초기 가정교회 역할 중 하나는 당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가 이러한 구제와 봉사를 위한 기능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행 2:44, 45)라는 구절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는 구절, 그리고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행 4:34 하, 35)는 구절들은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정교회에서의 이러한 구제와 봉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의 사회화를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교회가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행 2:47)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

15)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11-112.

16)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모델,” *미주 크리스찬 헤럴드*, 1998년 8월 2일자.

(4) 성도의 교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행 2:46)는 당시 초기 기독교로서의 가정교회가 공동체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다.

당시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을 대접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접대문화가 가정교회에서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가정교회에서는 이러한 접대문화가 사회적 역할의 의미보다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성도들 간의 교제”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였고, 외부적으로 가정교회가 매력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¹⁷⁾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초기 가정교회가 그 시대의 사회적 계층 구조를 넘어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준다.¹⁸⁾ 분명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는 같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동일한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정교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인 가정교회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계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는 평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 인종, 계급, 성(性)에 의한 차이를 두지 않고 교제하였다는 것은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획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초기 가정교회가 계층 간, 인종 간,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은 현대 가정교회에서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

(5) 선교의 거점

사도행전 2장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교회가 칭찬

17)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모델.”

18) Ibid.

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였다는 것은 당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으며, 초기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적응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주목과 칭찬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당시 교회의 위상이 높았던 것은 사도들의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 성도들의 헌신과 사심 없는 구제, 봉사가 큰 몫을 감당하였기 때문이었다(행 2:43-47). 이런 이유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삼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행 2:42),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오천 명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복음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지역과 이방지역에까지 전파되었으며,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복음전파의 역사에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결속된 신앙 공동체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흩어진 성도들, 또는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장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초기 기독교의 모임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가정교회를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가정교회는 그 지역의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당시 가정교회들은 선교의 거점 역할을 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그 지역의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고, 그 집에서 설교하면서 가정교회를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하였는데, 이때 사회적 관습에 의하여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초대된 이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가정교회에서의 설교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정교회는 지역에서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복음전파의 장이 되었다.

이 외에도 가정교회는 유능한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역할(행 11:22-27), 사도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롬 15:26)을 감당하였다. 바울은 선교여행 도중에 이러한 가정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하였으며, 가정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로써 예배, 양육과 훈련,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제 2 절 가정교회의 신학적 배경

소그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호칭도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랄프 네이버와 윌리엄 벡햄, 그리고 싱가포르의 FCBS의 로렌스 콩 같은 사람은 이것을 '셀 교회'라고 부른다. 로버트 벅크스는 이러한 소그룹을 '가정(home) 교회'라고 부르며, 미국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영기는 이러한 소그룹의 형태를 '가정(house) 교회'라고 부른다.¹⁹⁾ 그 외에도 이러한 소그룹은 '셀 그룹', '구역', '속회', '순 모임' 등 다양하게 불려진다. 이러한 소모임들은 소그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다른 소그룹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1. 가정교회의 정의

앞 절에서 가정교회의 성서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가정은 선교와 예배, 평신도 훈련을 위한 장이되어왔다.²⁰⁾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가정에서의 모임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19) 최상태,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3), 66.

20) 가정교회의 형태를 통해 목회를 하고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최영기는 가정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어 가정에서 모이는 개척교회이다. 둘째,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 셋째, 구성원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가정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주된 활동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다섯째, 대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지역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골고루 다 하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를 유사한 소그룹들과의 차별화시키고 있다. 최영기, *가정교회로 새로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2000), 71.

기독교 역사 초기의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교회 형태로 행한 것을 말한다.”²¹⁾ 이와 유사하게 가정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종교적 행위와 교제를 나눔으로써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약에 등장하는 가정교회와 현대에 있어서의 가정교회와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의 가정교회와 현대에 있어서의 가정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한 성서적 배경을 기초로 하되, 현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가정교회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다른 조직형태와의 차이점을 통해 찾아보고, 가정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가. 속회(구역)와 가정교회의 차이점

속회와 가정교회의 차이는 속회가 대체로 교회의 부속 기관인 반면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 기능을 한다는 데에 있다. 사역에 있어서도 속회는 친교가 목적이라면 가정교회는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교회가 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모두 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역 교회와 가정교회와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도 지역교회가 교단의 본부의 기능을 한다면 가정교회는 지역교회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속회는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만, 가정교회는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어느 가정교회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 다르다.²²⁾ 누구든지 그 지역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속회에 소속되는 것과는 달리 가정교회는 지역을 초월하여 타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성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21) 최영기, *가정교회로 새로워지는 평신도 목회*, 66.

22) Ibid., 69-70.

나. 순모임과 가정교회의 차이점

‘순모임’은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대학생 선교회(CCC)를 통해 소개된 것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이러한 순모임 제도를 교회 내에 도입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순모임은 주로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기존 신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반면 가정교회는 불신자를 우선하도록 하면서도 먼저 신앙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순모임과는 다르다. 이처럼 새 신자와 기존 신자들이 함께 하도록 한 것은 가정교회가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복음 선포의 열정과 새 신자들을 위한 삶의 본이 되도록 하고 새 신자들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공동체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정교회는 양육과 돌봄, 선교, 그리스도인의 훈련, 나눔의 기능을 함께 지닌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순모임과 가정교회의 차이점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선교의 기능이 가정교회의 가정 큰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가정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교회가 하는 기능을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에 의하여 이러한 제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가정교회와 다른 소그룹들과의 커다란 차이이다. 가정교회에서의 이러한 기능 수행은 평신도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교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평신도들로 하여금 사회적 변혁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²³⁾

2. 가정교회의 필요성

가정교회의 필요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교회의 존재이유에서 알 수 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 교회는 개척이후 약 15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교회이다. 그러나 이 교회의 조직과 운영은 이러한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여 허점을 드러내게 되었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때문에 담임자인 빌 하이벨스는 교회 안에 가정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23) 최영기, *가정교회로 새로워지는 평신도 목회*, 70.

교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후 교회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양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²⁴⁾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교회는 격변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선교적인 누수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는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칼 조지는 그의 저서 *미래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대형교회들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조지는 이들 교회들이 성장은 하였지만, 이러한 성장이 질적 향상을 가지고 오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질적으로 퇴보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장한 교회의 95퍼센트는 새로운 회심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부터 옮겨 온 성도들의 평행 이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사실에서 그는 교회의 재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미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을 전도하여 진정한 부흥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메타교회²⁵⁾를 제시하고 있다.

메타는 '변화'를 뜻하는 말로 그에 의하면 메타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그는 앞으로 미래교회는 소그룹들 형태를 중심으로 한 메타교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교인의 수가 많아져도 메타교회는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의 형태이고,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자 모임(feeder group)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돌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가정교회는 교회가 커지더라도 교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필요를 채워 주는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지에 의하면 필요한 사람(receptor)은 많지만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정교회는 지역교회의 하부조직 중 하나로서의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이라는 점에

2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재판: 서울: 두란노서원, 1998), 241.

25) 메타이론은 폴러 신학교에서 선교 인류학을 가르쳤던 폴 허버트에 의해 처음 학문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Carl George,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80.

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6)

칼 조지는 그의 저서 *미래교회*에서 교회를 그 크기에 따라 여러 동물들에 비유한다. 그의 분류의 첫 번째는 쥐 유형이다. 쥐 유형은 10명 안팎의 작은 교회로,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말한다. 두 번째는 고양이 유형으로 50명에서 70명 정도의 회중으로 구성된 교회로서, 담임 목회자를 둘 수 있는 자립형 교회를 말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로 볼 때 미국교회의 약 70퍼센트가 이런 고양이 유형에 속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애완견 유형으로 100여명 정도 출석하는 중간형 교회로서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들에 의해 주도되는 부서가 많은 교회를 말한다. 네 번째는 마당견 유형으로서 2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서 자원 봉사자와 유급 스태프를 둘 수 있고, 교회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한다. 다섯 번째는 말 유형인데, 이 유형은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교인들을 스태프들이 이끄는 여러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말(馬)의 속도의 힘을 얻게 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들 교회는 선교나 상담, 심방 등과 같은 분야별 사역자들도 필요하지만, 연령을 따라 각 계층의 교인들을 전담하는 사역자들을 두기도 한다. 여섯째 코끼리 유형은 출석교인 3,000명 이상이 되는 초대형 교회를 말한다. 그가 코끼리 유형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가 코끼리만큼 다루기 힘든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 형 교회는 엄청난 인력과 재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 역시 내재되어 있다. 대체로 거대 동물들이 인류 역사 속에 멸종되어 버린 것처럼 초대형 교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끼리 유형의 거대교회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거대교회가 가진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메타교회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메타교회로서 소그룹 활성화는 거대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만듦으로써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할 수 있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메타교회가 쥐나 고양이처럼 자생력이 뛰어나면서도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교회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7)

26) 김의원,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강의, 목회와 신학 세미나, 2002).

27)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68-82.

초대형교회로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교회를 활성화 시키고 교회의 역동성을 살리고 있는 교회들의 예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촌 교회를 들 수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구역'이라는 조직을 둠으로써, 구역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당의 지구촌 교회는 최근에 설립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설립 후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가정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회성장과 양육을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이다. 지구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을 활성화함으로써 소그룹에서 교인들의 양육과 선교의 책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지구촌 교회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그룹으로써의 가정교회는 현대교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교회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 1949년 중국에서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종교 활동은 금지 되었으며, 가시적(可視的) 교회들은 모두 폐쇄되고, 목회자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의 탄압을 피해 비밀리에 모여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 지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지켜 나갔다.²⁸⁾ 중국에서의 가정교회는 그 규모가 작다는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어 모임에 있어서 적극성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는 코끼리 유형의 초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쥐 유형의 소규모 교회에서도 교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메타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왔다. 가정교회는 초대형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하교회에서처럼 소규모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8)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42.

3. 가정교회의 역할

가정교회는 지역교회가 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면서도 그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각 시대마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현대 가정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었음을 이미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히 힘 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본문은 기독교 역사 초기 예루살렘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초기 교회의 가정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서로 떡을 떼는 교제와 물건들을 나눔으로 이웃을 돕는 봉사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전도와 선교가 있었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전통은 현대 가정교회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가정교회 역시 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로서 초대교회가 수행했던 이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가정교회가 갖는 독보적인 존재 이유는 보고 배우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주일학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은 아니며, 특별한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모두가 교사이며, 모두가 학생이다. 성경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성경 공부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정교회는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공동 식사를 하며, 또 함께 주말이나 휴일에 야외로 나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등산도 하면서 친교를 나누지만, 단순한 친교 단체는 아니다. 가정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돕는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도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봉사단체는 아니다. 또한 가정교회는 모일 때 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당 역시 아니다. 가정교회는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선교를 돕는 사역도 하지만, 그렇다고 선교 단체는 아니다. 가정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이다. 교회가 하는 모든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 29)

가정교회는 고유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가정교회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자주 얼굴을 대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곳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다. 누구라도 가정교회에서는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는 가족관계와 같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교회에서는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지배하려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정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지도자이며 모두가 따르는 자이다.

가. 성도의 교제

가정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참석한 사람들이 모일 때 마다 자신들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각자의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나눔이라고 한다. 이러한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방관자가 없게 하는 것이다. 가정교회의 모임은 보통 한 주간에 한 차례 이루어지는데, 이 모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생각, 고민과 난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한다. 이러한 나눔의 시간에는 개인의 부끄러운 부분이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인 자들로 하여금 개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배려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교회는 대체로 예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

29) Lois Barrett, *가정교회 세우기 (Building the House Church)*,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2), 14.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 성경공부도 있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도 있지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나눌 치유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반면, 가정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한된 소수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한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보다는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를 보면 대개 상담자와 내담자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가 신뢰를 기초로 하였을 경우, 이 신뢰의 형성으로 인해 상처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 상담 적 방법과 무관하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가정교회 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정교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관심으로 결속된 소규모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치유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가정교회의 목적이 치유는 아니다.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가정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환경 때문이다.³⁰⁾

나. 양육과 훈련

예수가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훈련 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 12명을 특별히 불러서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하고 훈련한 것에는 첫째, 12제자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 시키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고 둘째, 제자들의 인격적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였기 때문이었다. 소그룹 형태인 가정교회를 통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신자들 가운데는 많은 수가 주일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지역교회에서는 이들 신자들의 양육을 교회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

30) 최영기, *가정교회로 새로워지는 평신도 목회*, 81-88.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신자들은 양육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들 역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결국 양육과 훈련은 소수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많은 신자들은 소외된 채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교회는 소그룹이라는 모임의 특성상 신앙적인 모범이 될 만한 지도자를 통해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한 직접적인 양육과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정교회가 소규모라는 특성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서 양육과 훈련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하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육과 훈련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서로를 위한 양육과 훈련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신앙성숙을 도모하는 소규모 공동체이다.³¹⁾

다. 제자화, 선교

지역교회에 속한 속회나 구역은 기존 교회 성도들을 지역에 따라 묶어 두는 교제 공동체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속회나 구역은 우선 그 구성자체가 기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들의 개성이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특성이 먼저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가정교회는 새로운 가정교회를 분가하는 방법에 의한 번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가정교회는 전체 교인들을 지역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생명력을 가진 생동하고 번식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서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을 둔다.³²⁾ 즉, 가정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예수가 명령하였듯이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가정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에 사는 가까운 이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친구나 평소에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

31) 임석종, *구역 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02), 30.

32) Ibid., 33.

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가정교회라는 작은 신앙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면목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제자화 선교를 위한 공동체의 사명이 가정교회를 가정교회 되게 한다. 가정교회 모임에 불신자가 처음 초대를 받았을 경우, 모든 초점을 불신자에게 맞추어 그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가정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공동체로서 선교 지향적이다. 가정교회가 발전하여 또 다른 가정교회를 분가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제 3 절 가정교회의 역사적 배경: 초기 감리교회와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영국에서 웨슬리가 활동할 당시의 소그룹을 고찰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이미 그의 활동시기에 가정교회와 같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을 조직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교회 상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소그룹을 통하여 18세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무기력했던 영국 교회를 갱신하고 동시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부흥에도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감리교 초기 역사에서 가정교회의 원류(原流)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살펴보고, 그 소그룹 활동이 당시 신앙부흥과 목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것이 현대 가정교회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감리교회의 시작

가. 역사적 배경

감리교는 영국 국교회 목사였던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³³⁾로부터 시

33) 요한 웨슬리의 주요 연표.

1703. 6. 17. 영국 앵벳에서 목사의 아들로 출생

1714. 런던 차트하우스학교 입학

1720. 옥스퍼드 크라이스 처치대학 입학

작되었다. 웨슬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격변하는 시대에 활동하였다. 역사가인 허버트 버트필드(Herbert Butterfield)는 “1703년 웨슬리가 태어났을 당시는 영국과 유럽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있었다”고 말한다.³⁴⁾

영국의 18세기는 정치적 혁명뿐 아니라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였으며, 종교적으로 부흥운동(Revival Movement)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3R 시대, 곧 이성(Reason), 혁명(Revolution), 부흥(Revival)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³⁵⁾ 버트필드는 역시 이 시기를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로 보고 근대 과학혁명이 도래했던 시대이며, 현대적 국가와 현대적 경제생활의 특징이 나타난 시대라고 보았다. 1702년에는 영국에서 최초로 일간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버트필드는 이것을 대중 매체로 가는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한다. ³⁶⁾

이러한 시기에 당시 영국 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만연한 사회악에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웨슬리가 그의 부흥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였다.

1727. 문학사 학위 취득

1728. 장로 목사 안수

1729. 옥스퍼드 대학 조교수 퇴임

1738. 런던 페트레인가에서 신도회 조직

1738. 5. 24. 런던 올드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함

1739. 부리스톨에서 최초의 감리교회당을 건축함

1742. 부리스톨에서 최초로 속회를 조직함

1744. 런던에서 최초로 연회(年會)를 개최함

1751. 2. 18. 바질리(Vazeille) 여사와 결혼

son)1767. 미국 뉴욕에서 감리교회 시작

1778. 3. 2. 런던 교회 주택에서 별세.

유형기 외 3인 편, 요한 웨슬리 (서울: 총리원 교육국, 1939), 262-264.

34) Herbert Butterfield, *Eng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History of the Methodist Church in Great Britain*, Rupert Davies and Gordon Rupp eds., Vol. 1 (London: Epworth Press, 1965), 3, 김홍기, *감리교회사* (서울: KMC, 2003), 22.

35) 김홍기, *감리교회사*, 23.

36) Ibid., 22.

나. 존 웨슬리와 감리교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 바돌로메오 웨슬리(Bartholomeo Wesley)와 외조부 사무엘 아나슬리(Samuel Annaesley)는 모두 청교도 목사였으며, 그의 조부 존 웨슬리도 또한 청교도 목사였고,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Samuel Wesley) 역시 고 교회(High Church) 목사였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Susanna) 역시 신앙심이 깊고,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다.³⁷⁾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웨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옥스퍼드 재학 시절에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성경 연구와 기도 에 전념하였으며 경건한 삶을 위해 노력하였다. 1729년 11월 존 웨슬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조교수로 있으면서 홀리 클럽(Holy Club)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클럽의 지도자로서 웨슬리는 엄격한 규칙을 지키고, 구도자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였다. 때문에 홀리 클럽은 ‘엄격주의자(methodist)’, ‘열광주의자(enthusiasts)’ 또는 ‘성경벌레(Bible moths)’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³⁸⁾

이 클럽은 후에는 ‘methodist’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감리교의 고유한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⁹⁾ 그러나 웨슬리는 그의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여 자신의 신앙과 생활에 좌절을 경험하곤 하였다. 한 때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약 2년간의 사역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웨슬리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통한 영적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어떠한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1737년 12월 22일 영국으로 귀국하였다. 웨슬리는 1738년 1월 24일(화)자 자신이 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인디언을 회개시키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었다. 아! 그러나 누가 나를 회개 시킬 것인가? 나를 이 악한 마음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아직도 어설픈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 아!

37) 김홍기, *감리교회사*, 64.

38)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서울: 보이스사, 1995), 39.

39) Ibid., 39.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⁴⁰⁾

웨슬리 신학을 연구한 윌리엄 캐넌(William R. Cannon)은 웨슬리 자신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홀리 클럽 운동을 하고 미국 조지아 선교를 하였을 때까지는 아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의 신앙이었다고 말한다.⁴¹⁾

웨슬리는 그의 부모를 통하여 영국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전수받았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전통과 교리를 통해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율을 성실하게 준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믿음을 통해 만족할 만한 영적 감격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가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 온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Aldersgate Street)에서의 영적 회심을 경험하기까지는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었으며 이성적 종교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⁴²⁾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영적 체험⁴³⁾을 통해 이전의 그의 신앙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는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⁴⁴⁾ 조지 셀(George C. Cell)은 웨슬리가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를 극복하고 건설적인 신학자가 된 것은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us)를 포기하고 복음주의로 전향

40) 존 웨슬리 증서, 제 7권, 94.

41) William R. Cannon, *웨슬리 신학 (The Theology of John Wesley)* (서울: 총리원 교육국, 1962), 65.

42) 웨슬리 자신도 “나는 5월 23일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송흥국, *웨슬리 신학과 구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39.

43)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작은 집회에 참여하여 구원의 확신을 체험할 때 그가 쓴 일기에는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내 마음 속에 느낀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터놓고 간증을 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체험과 주로 전에 일관되었던 나의 신앙상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웨슬리 증서*, 제 7권, 81.)

44) George C. Cell, *존 웨슬리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송흥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5.

하기에 이르렀고, 초기 개혁자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종교 지도자와 부흥운동의 창시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⁴⁵⁾

회심 이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얻은 웨슬리는 그의 일생동안 매년 평균 6,439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전도를 하였다. 그의 전도와 설교를 통한 활발한 선교 활동은 복음의 능력을 실감나게 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그의 요청은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사회에 많은 도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사회의 도덕적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자신을 영국 국교회 목사로 인식하면서도 영국 국교회 제도적인 틀에 매이지 않았다. 1778년 3월 2일 그가 죽기까지 52년 동안 그가 한 전도여행 거리는 약 334,672킬로미터나 되었다. 그의 전기를 기록한 어거스틴 비텔은 “웨슬리는 말을 탄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도로 통행료를 물었다”고 전한다. 웨슬리는 그의 생애 말년에 이르기 까지 말 등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전국 각지를 여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기사”, “무적의 투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전령”으로 알려졌다.⁴⁶⁾ 당시 영국 국교회는 옥외집회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의 옥외집회는 영국 국교회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그의 불타는 영혼구원의 열정을 꺾지는 못하였다.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더 나아가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까지 생겨나게 하였다. 웨슬리는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을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형성하였고, 이것을 통해 신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였다.

2. 웨슬리와 감리교 소그룹

웨슬리는 회심 이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회전도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 때문에 웨슬리는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그룹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모여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도 웨슬리는 자

45) George C. Cell, 존 웨슬리의 재발견, 10.

46) David Lowes Watson, 웨슬리와 속회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한경수 역 (서울: 성서 연구사, 1986), 10.

신이 영국 국교회의 목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끝까지 독립된 교회를 조직하기를 거부하였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소그룹을 조직하게 되었다.

웨슬리가 아무리 뛰어난 조직가라 할지라도 아무런 모델이 없이 조직을 구성한 것은 아니었다. 웨슬리 당시 영국에는 많은 소그룹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때문에 웨슬리의 소그룹 운동은 그의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의 소그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729년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몇 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Holy Club을 조직하였을 때에 이미 런던과 웨스트민스터 지역에만도 40여 개의 신도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와 유사한 소그룹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웨슬리가 소그룹을 그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아이디어였음이 분명하다.⁴⁸⁾ 이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웨슬리는 다양한 구조의 소그룹을 만들어 신도들을 관리하였으며, 이것을 더 발전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가 소그룹을 조직 하고 운영했던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연합신도회(United Society)

웨슬리는 1739년 런던을 떠나 브리스톨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브리스톨에서의 그의 사역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웨슬리는 1739년 7월 11일,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⁴⁹⁾와 함께 브리스톨에서 최초의 감리교 신도회(Methodist Society)를 만들었다. 이어 1739년 12월에는 런던에서도 감리교 신도회를 조직하였다.

47)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서울: 세복, 1999), 206.

48) David Pike, *The Religious Societies, 1678-1738* Proceeding of the Wesley Historical Society 35 (1965-1966), 15, 35.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에서 재인용.

49) 윗필드(1714-1770)는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가로서 옥스퍼드 펨브로크 대학을 졸업한 후 곧 안수를 받고 정력적인 설교가로 활동했다. 웨슬리의 Holy Club에도 가입했으며 웨슬리와 함께 초기 감리교를 이끌었으나 나중에 웨슬리와의 신학적 견해 차이로 결별한다. 그를 일컬어 “칼빈주의적 감리교도”(Calvinistic Methodist)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웨슬리와 달리 그가 칼빈주의자였기 때문이다. 편찬위원회, *기독교 백과사전*, (서울: 기독교 교문사, 1993), 1630. 김홍기 외,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60.

웨슬리는 런던과 브리스톨 지역에서만 수 십 개의 신도회를 조직하였고, 1743년 5월 1일, 이 신도회를 모두 합쳐 '연합신도회'를 구성하였다.⁵⁰⁾ 그리고 1743년 5월 10일에는 연합신도회 총칙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에게 지킬 것을 지시하고 회원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만들었다.⁵¹⁾

웨슬리는 회심한 신도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도반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태한 신도들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이들 일 생겨났다. 웨슬리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빠져 있을 때, 우연히 브리스톨에서 속회가 조직되었고, 이것이 연합신도회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⁵²⁾

나. 속회(Class Meeting)

속회는 브리스톨에서는 1742년 2월 15일, 영국에서는 3월 25일 처음 시작되었다.⁵³⁾ 처음 속회가 조직될 때 과정을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침내 우리가 아주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방법이 떠올랐다. 그 후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브리스톨에 있는 몇몇 신도회에 대하여 대화 하면서 그 곳의 빛을 갹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말했다. "신도회 회원 모두가 빛을 다 갹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페니씩 내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서 그렇게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했다. "가장 가난한 사람 열 한명을 나의 그룹에 넣어 주십시오. 만일 그들이 얼마라도 낸다면 좋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방문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무것도 낼 수 없다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도 이웃에 있는 열 한명을 방문하십시오. 그들이 내는 것을 받고 모자라는 것은 당신들이 내십시오." 그대로 시행되었다.

50) 장학일, *밴드 목회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 연구원, 1999), 64.

51) 회원들이 지켜야할 준수 사항은 다음 세 가지 이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 신도들은 유해한 일은 삼가 행하지 말고, 온갖 종류의 악을 피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름, 주일을 범하는 일, 술 취하거나 술을 팔고 사는 일, 사치 유흥 등을 금하였다. 둘째는 해야 할 일: 가능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셋째는 제쳐야할 일: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준수하라. 공중 예배, 말씀의 사역, 주의 만찬, 개인기도, 금식, 절제 등. Ibid.

52) Ibid., 65.

53)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46.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 중에는 이러이러한 자는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나에게 알려 주는 사람도 있었다. 즉각적으로 나는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원했던 바로 그것이다.” 54)

속회가 처음 생기게 된 계기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웨슬리는 새 회당(New Room)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직체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12명을 단위로 하는 속회의 출발이 된 것이다. 그러나 속회가 단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55)

웨슬리는 즉각적으로 속회의 가치와 효용성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그의 조직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속회는 처음에 12명 씩 조직되었으며 매 주 한 번씩 목요일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속회 조직이 감리교를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웨슬리는 “감리회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약사(略史)”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속회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적 축복을 거두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우리의 모든 신도회에서 같은 규율을 적용하였다.” 56)

이후 모든 신도회는 브리스톨 형식을 따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속회는 감리교의 핵심적인 내적 그룹이 되었다.

다. 신도반(Band)

감리교 운동에 있어서 1742년은 특별히 기억될만한 해이다. 왜냐하면 이 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도반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해일 뿐 아니라, 여전히 회심치 못한 이들을 위한 속회가 결성된 해이기 때문이다. 신도반에 속한 이들은 연합신도 모임 이외에 주 1회 한 번 더 모임을 가졌으며, 속회의 구성원은 앞서 밝힌바 대로 12명의 신도반 회원 가운데서 신앙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신도반에서는 반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3개월마다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54)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46.

55) David Watson,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87), 94-95.

56) *Works* Vol. 13, 310.

신도반원은 속회원 가운데 보다 신앙적으로 진일보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선발되었으며, 신도반에서는 속회에서 경험하는 교제보다 더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웨슬리가 신도반의 회원을 제한시킨 것은 신도반을 보다 완전을 향한 영적 탐구가 촉진되고 인도되어지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이다.⁵⁷⁾ 웨슬리는 기혼과 미혼, 남·여 성별을 구분하여 신도반을 구성하였고, 남자 신도반은 매주 수요일에, 여자 신도반은 매주 일요일에 모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신도반에 속한 모든 남성들만의 모임, 모든 여성들만의 모임, 그리고 남녀 합동 모임을 열어 애찬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신도반 회원을 받아들였다.⁵⁸⁾ 이렇게 하여 신도반은 속회와 함께 연합 신도반을 유지하기 위한 커다란 두 기둥이 되었다. 신도반의 구성원들은 2-3개 속회원 들 중에 약 20퍼센트 정도가 되었으며 대략 6-8명 정도가 되었다.⁵⁹⁾

라. 선발 신도반(Select Society)

웨슬리의 감독 아래 있던 감리교 초창기에는 “선발 신도반”이 연합 신도반에서 가장 깊은 내부적 조직이었다. 연합 신도회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조모임이 구성된 것처럼, 선발 신도반은 신도반인 조 모임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선발 신도회는 가장 헌신된 조 모임 회원들 중에서 웨슬리가 직접 선발한 사람들이었다. 웨슬리는 1742년에는 런던에서 이 선발 신도회를 조직하였다.⁶⁰⁾ 이러한 중심그룹의 조직은 웨슬리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열쇠가 되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자, 웨슬리는 바로 이렇게 훈련된 평신도들을 활용하였다. 웨슬리는 그가 특별히 구성한 선발 신도반을 통해 훈련된 사람들을 신도반의 조모임의 지도자, 속회 지도자, 지역 설교자로 세웠다. ⁶¹⁾ 이 선발 신도반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모든 회원들이 내적, 외적으로 완전의 추

57) Watson, *웨슬리와 속회*, 116.

58) 장학일, *밴드목회 이론과 실제*, 68.

59) Howard A. Snyder, *혁신적인 교회 갱신과 웨슬리 (The Radical Wesley)*,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84.

60) *Works* Vol. 8, 260.

61)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42.

구가 강조되는 교제권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웨슬리 자신의 감정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웨슬리 역시 감리교의 창설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동역 자들로부터 격려와 조언과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다.⁶²⁾

마. 참회자반(Penitents Society)

웨슬리는 신도 각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의이든, 습관이든, 중간에 탈선하거나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웨슬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회나 신도반이 효과가 없을 때는 그들의 형편에 맞는 특별한 그룹을 만들 필요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참회자반이다. 이 참회자반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였고, 형편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참회자반에서는 찬송과 기도 역시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개작하여 운용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약속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회자 반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중간에 탈선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다.⁶³⁾

3. 감리교에서의 속회의 역할

속회가 처음 생긴 계기는 새 회당 건립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한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만, 속회의 역할은 재정조달에 제한되지 않았다. 웨슬리는 속회를 신도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며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감리교는 이러한 소그룹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소그룹 중에서도 속회는 감리교의 핵심적인 내적 그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웨슬리는 교회사적 전통에서 사용하여 온 불변하고 영구적인 은총의 수단을

62)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43.

63) 장학일, *밴드 목회의 이론과 실제*, 69.

“Instituted means of grace”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기도, 말씀, 성만찬, 금식, 그리고 각종 영성훈련 모임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Prudential means of grace”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과 악행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⁴⁾ 속회는 이러한 교회사적 전통에서의 불변하고 영구적인 은총의 수단과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은혜의 수단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속회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성공시킨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건강한 교회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속회는 18세기 영국 사회의 영적,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되었다.

가. 은혜의 수단

미국의 속회 연구가인 데이비드 왓슨(David L. Watson)은 속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속회는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역사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특별한 사역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다.⁶⁵⁾

이와 같이 속회는 회심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점차적으로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인 속회를 통해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⁶⁶⁾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웨슬리는 속회를 통하여 회심 자들이 선재 은혜, 신생, 칭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들을 지도하고 훈련시켜 나갔던 것이다.⁶⁷⁾ 그가 이 속회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초기 감리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은 이 속회의 틀 안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 만약 이 속회제도가 없었더라면 영적인 성장은 여러 측면에서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⁶⁸⁾

웨슬리 당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기도와 성서연구, 성도간의 친교를 경험할 수

64) 김홍기, *감리교회사*, 255.

65) Watson,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145.

66) Ibid., 132.

67) Ibid., 126.

68) Ibid., 108.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공유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능을 하는 속회는 신도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⁶⁹⁾ 결국 웨슬리는 속회를 은혜를 나누는 장으로 활용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도의 성화를 수련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나. 영적 교제의 장

속회가 조직된 후, 속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속회원들의 집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적인 손실, 왜곡된 관계, 개인적 면담을 통해 야기되는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자 웨슬리는 속회를 속장의 지도아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 바꾸었다. 이후 회원들은 모임 때마다 역동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 서로 '짐을 지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모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⁷⁰⁾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의 가정교회가 회심한 사람들 상호간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되었던 것처럼 웨슬리의 속회 역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만일 속회라는 소그룹 형태의 조직이 없었다면,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 거듭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여 다시 나태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웨슬리는 속회를 조직할 때, 신분이나 사회적 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속회 내에서는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직업과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1763년 빙글리(Bingley)에 있는 속회를 예를 들어 보면, 그 속회는 직조공, 구두 수선공, 양털 빚는 사람, 방직공, 하인, 소지주, 소매상인, 농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⁷¹⁾ 그는 속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나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벧후 3:18)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69) 존 웨슬리 총서, 제 3권, 242.

70)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47.

71) Leslie F. Church, *More about the Early Methodist People*, (London: The Epworth Press, 1949), 3.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에서 재인용.

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의 장

속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는 것이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도회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지도할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속회에 속장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속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였으므로 누구나 속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웨슬리는 속장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 원리를 보면 첫째, 속장은 반드시 웨슬리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선출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선발되어야 하고 셋째, 그가 작성한 임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²⁾ 이렇게 선발된 속장들은 속회를 인도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증거자, 교사, 설교자로 훈련받기도 하였다. 한편, 속장으로서의 훈련과 양육은 속장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속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신도 지도자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당시 안수 받은 목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역은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 개발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⁷³⁾ 웨슬리는 속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평신도 지도자를 개발하고 그들을 훈련함으로써 평신도들을 사역에 적극적이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 교회의 역동성을 재생시키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⁷⁴⁾

라. 신앙 훈련의 장

속회는 남녀 구분 없이 회원과 지도자를 영입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회심된 자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었다. 속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앞으로 닥칠 진노를 피하고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

72) *Works*, Vol. 12, 455.

73) J. O. A. Clark, ed., *The Wesley Memorial Volume: Wesley and the Methodist Movement* (New York: Phillips & Hunt, 1881), 206.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에서 재인용.

74)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53.

으면 되었다. 그러나 일단 가입이 되면 각 회원은 세 가지 의무가 수반되었는데 첫 째는 악을 피하는 것이며, 둘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⁷⁵⁾

웨슬리는 신도회와 속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환영하긴 하였으나, 일단 회원이 되면 모든 규율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당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주요한 원인중 하나는 기강(紀綱)의 나태해 졌기 때문이라고 여겼다.⁷⁶⁾ 따라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웨슬리는 회원들을 적어도 삼 개월에 한 번씩은 개인적으로 만났고, 출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권을 발행하였다. 반면, 무질서한 회원이나 삼 개월에 세 번 이상 속회를 빠지는 회원에게는 입장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회원들을 배제시키기도 하였다.⁷⁷⁾ 그의 이러한 결정은 속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람들을 추방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곤 하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것이 그들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위한 것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⁷⁸⁾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고, 경험이 없는 자들을 인도하며,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며, 믿는 자들의 교제를 진작시켰다.⁷⁹⁾ 그는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 온 자들을 방임하지 않고 속회와 같은 소그룹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의 삶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감리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속회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는 영적교제의 장으로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의 장, 그리고 신앙 훈련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감리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속회는 감리교를 역사 속에 든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소그룹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감리교는 속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성도들은 속회를 통해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지도받을 수 있었다.

75) *Works*, Vol. 8, 270-271.

76) Larry O. Tingle, *The Wesleyan Class Meeting: Its History and Adaptability for the Twentieth Century Church* (D. Min. diss., Wesley Theological Seminary, 1984), 72.

77) *Works*, Vol. 8, 256-267.

78) *Works*, Vol 1, 416.

79) Charles L. Goodell, *The Drillmaster of Methodism* (New York: Eaton & Mains, 1902), 15.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51.

제 4 절 현대교회와 가정교회

지난 20세기말 교회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성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성장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양적 성장은 가져왔지만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여 교회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적잖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주의가 가져다주는 병폐중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지 못하였다 것이다.

성장주의의 이러한 한계를 경험한 교회들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건강한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역시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을 통해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 받은 것이 교회 안의 소그룹이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은 이미 18세기 영국에서 속회를 통해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웨슬리에 의해 입증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한 때 활발했던 소그룹 운동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교회 역사 가운데 점차 소원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속회와 같은 셀 그룹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그룹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셀 목회 즉 가정교회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이론으로 제시한 사람은 랄프 네이버이다. 그는 싱가포르 신앙공동체 침례교회(PCBC)의 로렌스 콩과 더불어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급속한 교회의 성장은 물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⁸⁰⁾ 이로 인해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나라들에서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을 통한 교회 성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가정교회는 셀처럼 번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강한 생명력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구원 얻은 성도들로 하여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가정교회는 모든 교인들을 동력화하므로 가정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역에

80)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 교회 (The Apostolic Cell Church)*,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1), 9.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역동성을 발휘하게끔 한다. 이처럼 소그룹으로서의 가정교회의 등장은 교회 성장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현대 교회에 새로운 대안이 되었으며, 교회의 수적 및 양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정교회를 통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과 외국의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목회의 대안으로서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외국교회

가. 인도네시아 아바러브(Abbalove) 교회

아바러브 교회는 자카르타 발리, 롬복 섬에 13개와 각 1개씩의 회중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카르타에는 13개의 회중으로 이루어진 아바러브교회가 여러 장소에 있다. 이 교회는 성도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각각 지역별, 유사한 사람들의 그룹별로 회중을 구성하여 가정교회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본부는 자카르타 구능사하리 라는 지역에 있는데 건물은 초라하지만, 아주 다양한 사역을 실행하고 있다. 아바러브에는 지난 2002년 6월 통계로 750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며 약 8,000명 이상의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월에서 6월까지 617명이 침례를 받았다. 전임 사역자들은 400명 이상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평신도들로서 은사를 따라 다양한 사역을 행하고 있다.

아바러브는 이처럼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가정교회를 통해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양적 및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아바러브에는 매주 적어도 100명의 새 신자가 왔으며, 그 중에 약 40퍼센트가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활발한 사역은 새 신자 반인데, 이 반에는 매달 200여명의 새 신자가 등록하고 있다. 새신자반에서는 이렇게 등록한 새 신자들을 ‘캐더링’이라는 1박 2일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통하여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교회에 정착시키고 있다.

담임 목사인 에디 레오(Eddy Leo)는 가정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을 목회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

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교회 이름을 ‘아바러브’, 즉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한 이유도 이러한 그의 사역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회교권으로 아직도 일부다처제가 사회 제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아바러브 교회는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8개 지역에서 학교 사역과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약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인도, 중국, 베트남, 파푸아 뉴기니, 발리,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⁸¹⁾ 많은 학자들은 이 교회의 성장의 요인과 건강성을 가정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돌봄과, 예배의 혁신에서 찾는다.

나. 미국 휴스턴 Touch Family 교회

싱가포르에서 셀 교회를 실시하면서 가정교회 이론을 조직화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랄프 네이버는 2001년 은퇴한 후, 그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그 이름을 Touch Family라고 하였다.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자신의 셀 이론을 접목시켜 가정교회를 실험하고 있는 교회이다. 네이버는 가정교회의 기본 적인 구조인 G-12⁸²⁾ 이론에 따라 가정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주로 불신자를 위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사역은 전도 지향적이며, 12회원으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인도하도록 하고 각 회원들이 새로운 셀을 인도하도록 멘토링한다.

G-12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뛰어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을 근거로 모두가 교사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다

81) 박홍래, *셀 그룹 셀 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198-204 참조.

82) G-12란 12명의 제자를 개발하는 능력 있는 영적 관계의 새로운 기술로서 G-12의 원리는 셀 그룹(가정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를 멘토와 프로테제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이 관계의 두 가지 목적은 영적인 친밀감과 재생산이다. 이를 성서적인 단어로 말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이다. 박홍래, *셀 그룹 셀 교회*, 169 참조.

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G-12 이론의 핵심적인 철학이다. G-12 즉 교회 안의 12명으로 만들어진 가정교회는 어린 성도들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G-12는 제한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G-12 이론은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을 기초로 한 멘토링 시스템으로서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여야 하며, 예배를 드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12명은 매주간 만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지금 이 교회는 초대교회의 자생력과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⁸³⁾

2. 이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이다. 담임목사인 최영기는 가정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정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1993년 1월에 이 교회에 부임하였다. 그의 가정교회를 통한 목회는 그의 부임 당시 120여명에 불과했던 교인이 현재 1,200명 이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현재 100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조직함으로써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성장 모델이 되고 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가정교회는 1993년 10월부터 23개의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최영기 목사가 부임하면서 그가 그동안 전임지에서 실험하였던 여러 개의 13주 과정의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여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가정교회 시작한 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교인수가 증가했는데, 그 해 출석 인원이 300명을 넘었고, 다음해 4월에는 400명을 넘었다. 이 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성장하게 되자 1996년부터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목회자들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83)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212-218 참조.

이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가정교회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라면 지역을 초월하여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한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가정교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영기 목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장된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워 동역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가정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영혼구원에 두었는데 이것은 전도는 목회자보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⁸⁴⁾ 그는 “서울 침례교회가 제자를 길러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⁸⁵⁾ 하고 기도하였는데, 그의 이 기도에는 가정교회에 대한 그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

최영기는 랄프 네이버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Where Do We Go from Here?)*⁸⁶⁾라는 책을 읽고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랄프 네이버의 자문을 직접 받아 가면서 이민교회 현실에 맞도록 스스로 독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 그는 먼저 가정교회 지도자들인 목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정교회 구성원을 6-15명 정도로 하고 동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하였다. 그는 목자를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되 예비 목자를 두어 언제라도 그 가정 교회가 분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분가란 가정교회 구성원이 15명 정도가 되면 훈련된 예비 목자에게 지금까지 담당 목자의 가정교회(목장)를 넘겨주고, 그는 두 세 사람과 함께 다시 목장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그가 가정 교회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은 이민교회라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예배 중심보다는 삶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였으며, 목자들은 이민자들의 삶을 나누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⁸⁷⁾ 따라서 사람들은 가정교회를 통해 내적 치유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구원 얻는 자의 수를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양과 질에서 있어서 성장을 가져왔다. 현재까지 서울 침례교회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가정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

84) 최영기, *나 이런 목사들시다* (서울: 인영출판사, 1997), 34-35.

85) Ibid., 48.

86) Ralph W. N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Houston: Touch Publication, 1990).

87) 최영기, *나 이런 목사들시다*, 108-113.

나. 얼바인(Irvine) 베델한인교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델한인교회는 1993년 손인식 목사가 그 교회의 제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1997년부터 Cell Church(가정교회)로 교회 체제를 바꾼 후, 현재 LA 지역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으며, 현재는 4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⁸⁸⁾ 손인식 목사는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사역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팀워크 중심의 평신도 사역을 실행하고 있으며,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것을 강조하면서 셀 교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 제자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러한 셀 교회를 통해 교회의 에너지를 선교지향적인 것에 집중시키고 있다.⁸⁹⁾

얼바인 베델한인교회는 원래 전통적인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교회였지만, 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모든 조직을 셀 중심으로 조직화 하였다. 행정단위부터 성경 공부 등,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에 예루살렘 가정교회 같은 소그룹을 형태의 셀 교회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셀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찬미하고 기도하며, 집에서 모이고, 함께 떡을 나누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는 사도행전의 사역을 항상 꿈꾸며 기도하도록 가르친다. 이 교회의 한 셀 교회는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50여개의 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⁹⁰⁾

다. 서울 목산 침례교회

서울 목산 침례교회는 가정교회를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교회이다. 김현철 목사는 1988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남침례교회의 셀 그룹개념을 교회에 도입하였다. 그는 교회학교 성경공부반을 10-30명으로 구성하였는데, 교회를 개척한지 4년이 지났을 때 출석 인원이 440명이 되었다. 셀 목회의 중요성을 체험한 그는 1994년과 1995년 미국 버클랜드교회에서 열린 가정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가정교회 사역을 다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셀 목회를 적용하게 되었다.⁹¹⁾

88)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165.

89) Ibid., 167.

90)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169.

목산침례교회는 유아부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성인부 등 전 교회 교인들을 가정교회로 편성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지도자를 목자라고 부르고 특별한 과정 없이 누구나 헌신된 자이면 목자로 세운다. 가정교회는 주중에 한 번 모여 그 진행은 목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대체로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여서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한 후 모임을 마친다.

이 가정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멤버십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끝까지 돌보고 양육하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멤버가 되면 가정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의무가 부여된다. 멤버가 된 구성원은 한 가족으로서 교제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영적 성숙과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⁹²⁾ 이러한 가정교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단 회원이 되면 단순한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삶을 관여하고 책임지는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되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로서의 결실을 맺어 가게 되는 것이다.⁹³⁾

91) 박영철, “버크랜드 침례교회와 목산침례교회 그 목회 철학을 본다,” *목회와 신학*, 1998년 9월호, 116.

92) Ibid.

93) Ibid., 117.

제 3 장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과정과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

제 1 절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상황

1. 교회 개척기

밴나이스 한인 연합 감리교회는 1986년 4월 13일, 약 20여명의 평신도들이 LA 한인 타운 “성은장”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교회 개척의 뜻을 모아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교회는 1986년 9월에 초대 담임자로 김동형 목사를 청빙하고, 같은 해 12월 12일 셔먼옥스 연합감리교회(UMC)의 건물을 빌려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⁹⁴⁾

그 후, 약 2년 동안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6260 Tyrone Ave. Van Nyus, CA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인 소유의 밴나이스 제일 연합감리교회(First UMC of Van Nyus)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 연합 감리교 Cal-Pac 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고 교회 위치를 옮겨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⁹⁵⁾ 이 교회 건물이 위치한 밴나이스 시 중심가는 주로 멕시코 이민자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역이므로 한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교회 건물을 한국교회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과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3층 건물의 교육관과 친교 실, 넓은 주차 공간 등은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지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점점 교인들은 감소하

94) 편찬위원회,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 요람* (2000), 5.

95) Ibid., 6.

였고 현재는 30여명의 교인들이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중에 몇 차례 회의를 갖거나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어린이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교육관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 한인교회가 교육관 전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 교회의 위치가 한인 선교를 위해서 적절한 위치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음으로 지금까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2. 부임 전의 교회 상황

초대 담임자인 김동형 목사는 탁월한 인화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개척 당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기성교인들을 모아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을 잘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개척 초기에 이미 장로가 된 사람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상당수가 모여들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교회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불비(不備)한 중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갔으며, 김동형 목사가 은퇴할 1998년 6월 당시 LA 지역의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해 있었다.

김동형 목사가 12년 동안 사역을 마감하고 은퇴한 후, 같은 해 7월 1일에 감독의 파송을 받아 본 연구자가 제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사역을 시작할 당시 교회는 장년이 약 250명,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약 150여명이 출석하고 있었다. 교회 유급 직원들로는 부 목사 1인, 아동부 교육 전담 사역자 1인, 중고등부 사역자 1인과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2인이 있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들 12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은퇴한 원로 장로들도 있었다.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 참여율은 높았고 헌금도 교인 수에 비하여 대체로 많은 편이었다. 대체로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로서 대부분 교회 활동이 교회 내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회의 중점 사안으로는 2세들의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예산 편성으로 본 지출 규모에서 교육비 예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었다.

교인들을 연령 분포로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편이고 60대, 40대, 30대, 20

대, 70대 순으로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가장 많은 교인 구성을 이루는 5, 60대의 남녀 대비는 큰 차이가 없이 55대 45 정도로 여성 교인들이 남성들 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다. 대체로 전체 교인 분포로 볼 때, 중년 이상이 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은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대한 교회적인 지원이나 관심은 높은 반면, 청년부는 취약하였다. 특히 영어권 젊은이들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성가대의 비중은 타 기관이나 부서 보다 교회 내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가대원 수가 40여명이나 되었고, 교회의 종직들 중 많은 수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교회 하부 구조 조직으로 속회가 지역별로 조직 운영되고 있기는 하였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집되었기 때문에, 교인을 관리하는 것과 성도 간에 친교 기능 외에는 특별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교회의 조직으로는 각 연령별로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70세 이상 된 이들은 명목상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특별 그룹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 외 60대와 50대, 40대, 30대는 연령별로 여선교회가 각기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남 선교회 역시 연령 별로 세 그룹으로 조직 되어 있었다. 대체로 선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교회나 한국 농촌교회를 수시로 지원해 주는 일이 중요한 사업 내용이었고 정기적으로 선교 지나 선교사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특히 여선교회가 하는 일 중에는 주일 예배 후에 친교를 위한 애찬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은 교회 내부에서의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었으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교회 외부의 지역 선교를 위한 활동은 거의 없었고, 외부의 선교사를 돕거나 지원하는 일 역시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교회 내부에서의 인화(人和) 문제는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알력과 주도권에 대한 집착이 있어 교인 서로 간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UMC의 제도적인 특성상 상회(上會)와의 관계는 connectional system을 통해 연회와 지방회, 개체교회가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국 이민교회가 겪는 것처럼 교회의 전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협력

관계는 원할 하지는 못한 편이었으며, 연중에 지방 감리사가 교회를 1차정도 방문하여 구역회(charge conference)를 사회하는 정도였다.

교회 건물 관리는 한인 교회와 미국인 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교회가 교회 건물 관리를 위한 한미협력기구를 만들어 건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함께 모여 교회당 수리 및 확장 문제를 논의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3명이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건물은 오랜 역사로 인해 많은 부분이 낡아 있었지만 미국교회는 재정적으로 건물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재정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한인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이 1989년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의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이었다.

3. 부임 후의 교회 상황(2003년까지)

1988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5년 4개월 동안 제 2대 담임목사로 연구자가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바쳤다. 이러한 노력에는 교회가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임 후 약 2년 동안 교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통적인 교회를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교회의 모든 구조를 가정교회 형태로 바꾸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목회 파트너가 되게 하여 30개의 가정교회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목회의 중점 사안을 선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늘어나는 교인들의 수에 비례하여 선교지도 늘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매년 선교사 한 사람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일을 계획하고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해마다 그 일을 시행하였다. 타타르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으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 외에 각 가정교회(목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선교지를 정하여 선교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과 영적인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여 직접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도록 하게 했다. 가정교회가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면서는 해 마다 약 100여명의 새 신자들이 등록하게 되었고 재

정은 크게 확대되어 매년 20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⁹⁶⁾

가정교회가 정착됨에 따라 교회에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속회를 폐지하고 매주 한 차례씩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었다.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면서는 이전의 속회로 모일 때와는 다른 새로운 교회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고 평신도들의 역할이 교회 내에서 확대되게 되었다. 특별히 평신도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정교회 사역자들인 목자들로 부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목회의 파트너라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 받은 목자들은 스스로가 교회의 수혜자(受惠者)라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목회자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담임목사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애정과 성도들을 돌보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교회 내부의 조직형태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교회 안에 모든 활동은 가정교회를 위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각 선교회 활동이 가정교회의 형태로 바뀌면서 연령별로 조직된 선교회는 연회나 지방회와 같은 상회 기관들과의 유대문제 때문에 명목상 유지는 하지만, 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축소되고 단순화 되었다. 행정조직은 이전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임원회와 제직회)⁹⁷⁾를 두고 한국 이민 교회의 특성을 살렸다.

유급 사역자로는 가정교회를 전담하는 부교역자 한 사람과, 영어권 사역을 위한 전담 사역자, 찬양 전담 사역자를 두었으며, 중고등부와 아동부 전담 사역자를 두어 2세 교육과 청년부 활동에도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전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구조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제 2 절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문제점

지금까지 안정을 구가하며 큰 어려움이 없이 평온한 중에 교회가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요소들이 있음을 직

96) 편찬위원회, *밴나이스 한인 연합 감리교회 구역회 보고서* (2002).

97) 임원회는 각 부서 부장들과 위원회 위원장들과 연회원, 목회자들로 조직된 교회 최고 행정 기관이며 제직회는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함.

시하고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보다 건강한 교회로의 면모를 일신하여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교회로서만이 그 사명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동일한 의무와 책임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당시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회로서의 취약성을 노정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1. 평신도 지도자들의 의식의 문제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담임목사로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 구성원은 대체로 한국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이민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적은 수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교인의 대부분은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역동적인 사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들의 사역의 대부분은 담임목사를 따라 교회 내부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평신도 대부분은 재무부, 교육부, 관리부, 주일학교, 성가대 등, 교회의 기본 조직 안에서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하고 있었고 평신도 스스로 창조적인 선교사역에 참여하여 목회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형편이었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수동적이며, 담임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은 있으나 목회에 대한 동역자 의식은 결여되어 있었다. 교회 성도 대부분은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개발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무엇보다 안정을 우선하는 교회였다.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재무부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일, 각 위원회나 부서 등에서 위원장이나 부장으로서 사역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발휘하여 보다 선교지향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체로 정기 예배에 잘 참여하였으며, 교회가 행하는 각종 행사에 협력하는 일

과 재정적인 지원에는 능동적이었지만, 대체로 그 사역은 주일 하루에 제한되어 있었다. 물론 주중에 모이는 정기 예배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주일 하루로 봉사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가하면 평신도 지도자(임원과 제직)들 중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직책이나 직분을 자신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소수의 몇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직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책임의식보다는 직분이나 직책을 하나의 신분 상승의 일환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분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이 직책과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는 내심 교회 직분이나 직책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았다. 전임자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야기될 교회 내의 불평과 갈등 때문에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직분을 주지 않고 유보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게 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직분에 대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예루살렘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 제도는 봉사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직분제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집사, 권사, 장로 제도가 보이지 않는 계급의식과 신분 상승의 일환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잘못된 평신도들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평신도들만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목회자들이 목회의 유익을 위해 부추겨 온 면도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의 열심과 봉사에 비례하여 직분을 남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보상으로 직급을 상승시키는 도구로 직분을 이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안에서 직분은 계급으로 이해되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존경받고 대접 받는 자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본래 교회 임직을 세울 때의 근본정신과는 많이 배치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런 오식(誤植)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오늘 현대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Ministry)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존 스토틀은 이런 현실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교회를 목회자의 특권 의식과 계급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나는 주저 없이 말하고 싶다”(98)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보다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을 저해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2. 교회 조직의 비효율성

연구자가 부임하기 전 교회의 조직 상황은 미국 연합감리교회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한국교회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이원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행정체계는 담임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해 전횡이 가능한 구조였으며, 교회의 제반 프로그램이나 행사 및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역시, 대부분 담임목회자의 의사로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교회 임원회가 조직되어 있긴 하지만, 임원들은 참여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형편이었다.

교회 안에 행정적인 기구로서 연합감리교회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의 주요 정책인 프로그램은 담임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한 후에 임원회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교회의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평신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교회는 제한된 소수로 구성된 담임목사와 기획위원들에 의해 모든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교회는 기득권을 가진 상부 기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수동적으로 그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직적인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인들 중에는 진취적인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생각이 있었음에도 교회의 구

98)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 신문사, 1998), 81.

조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개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는 서로 보완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의 모든 운영을 목회자와 유급 직원들에게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틀을 깨고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활용한다면 교회의 운영과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전담 목회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여김으로써 목회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독점 의식이 지배적이다. 한국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시작되면서 평신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은사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과 함께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단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목회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다.⁹⁹⁾

3. 평신도들의 소극적 참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평신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도를 부르신 것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을 마치 동전의 양면으로 떼 수 없는 한 가지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도가 부름 받은 것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역을 목적으로 성도를 부르셨다는 성서적인 근거가 된다. 성도는 단지 부름 받은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⁰⁾

99) 예를 들면 한 평신도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양육 받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사역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목사님을 돕는 것이 기쁩니다.

Paul R.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5), 13.

100)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87-88.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므로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정교회 파라다임은 상당 부분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가정교회는 선교지적인 구조임으로 선교의 극대화를 이루기도 한다. 가정교회의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와 그 은사를 통해 어떻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목회자는 이러한 은사개발과 적적할 사역의 위임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갖는다. 시더 메노나이트 교회의 스티브 레슬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사역을 위한 은사를 소유하지 않은 교인은 아무도 없다.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성장하며 서로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을 받았다. 각자의 은사는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타인의 은사를 대신할 수 없다.¹⁰¹⁾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개발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잠들어 있는 평신도들을 깨워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여 선교의 에너지로 투자한다면 엄청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은사들을 개발해 내는 일은 목회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인교회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의 ‘평신도’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다른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신도의 지위를 사역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엡 4:11-12). 이 구절에서 바울은 목회자의 책임이 무엇임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온전케’라는 단어는 영어의 ‘무

101) Lois Barret, *가정교회 세우기*, 임종원 역 (서울: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2002), 130.

장 한다'(equip)라는 뜻이며, 전쟁에 나갈 군사에게 모든 장비를 갖추게 하고, 필요한 모든 기술을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¹⁰²⁾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동역자로 출전하게 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본문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동일하게 부름 받은 자들로서 동역자임을 말한다. 즉, 각기 그 기능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인 것이다.

평신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laos)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이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추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찬사를 나타낸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평신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각 지체로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엡 4:16) 몸의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이다. 성직을 수행하는 평신도와 성직을 수행하지 않는 평신도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표현을 빌리면, 이 둘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모두 상대방인 ‘너’의 관계이다.¹⁰³⁾ 그러므로 평신도와 성직자는 신분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그 기능상 직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된 은사를 개발하도록 하고, 그들의 은사에 적합한 사역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제 3 절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와 교회론 재정립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진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 교회의 건물은 4세기 경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예배당 건물을 세운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시적 교회의 출현은 교회의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만들고 말았다. 웅장하게 보이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소위 쿠리아코스 즉 '군주다운 집'으로 바뀌면서 '커크'(kirk)라는 말에서 '처치'(church)

102) Lois Barret, *가정교회 세우기*, 88.

103)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13.

라는 말로 정착되었다.¹⁰⁴⁾

1.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는 가시적인 건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형에서 많이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건물 중심의 보이는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제한시키게 되었다. 왜냐하면 교회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 초기 교회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를 지향하였다. 지상에 존재하면서도 보이는 것 이상의 온전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해하였다(고전 12:27).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그것이다.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받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기능은 모이는 일을 통해 훈련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정제된 삶을 보여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적인 사명 행하는 것, 봉사를 통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하는 ‘비가시적 교회’의 기능을 포함한다. 로버트 슬로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흩어지는 교회는 주일과 주일 사이의 교회를 말한다. 축도가 끝나고 마지막 송영이 울려 퍼지면, 나는 성전 문을 빠져 나와 흩어진 교회인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¹⁰⁵⁾

일반적으로 교회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할 때, 이 용어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별개의 것이라고 잘

104) E. Glann Wagner,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44.

105) Robert E. Slocum, *평신도 목회의 극대화*, 서병택, 서병채 역 (서울: 평신도 목회자 연구소, 2003), 196.

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별개로 세운 것이 아니다. 교회의 이 두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공동체라고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스스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한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교회의 이 흩어짐은 교회와의 결별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들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새로운 모이는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모이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별도로 세워 그들을 파송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전파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흩어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새롭게 모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는 다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고 있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를 격려하였다. 모이는 공동체로서 가정교회는 그들의 모임을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이는 교회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임을 통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도간의 교제를 통한 결속으로 결집된 에너지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흩어진 교회로서 복음전파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동시에 세상 속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 세상을 변화 시켜야 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임무를

가진다. 모임은 흩어지기 위함이며 흩어짐은 모이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소명단체인 동시에 봉사단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 동시에 세상을 위한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일 때에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위한 교회일 때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에만 그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강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여 들게 하는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려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회는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삶의 현장 속으로 흩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흩어지기를 거부함으로써 교회 자체 내부에서만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주 임무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 밖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교회는 교회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현실적 상황은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때문에 가정교회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교회의 기능을 강조한다.

2. 이민 교회 현실과 정체성 회복(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12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60-80년대의 교회의 급성장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200여 개국에 1만 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세계화와 이민이 증가하면서 2004년 현재 약 4000개의 해외 한인교회가 세워졌으며, 중국이나 소련의 조선인교회를 합한다면 한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더 많을 것이다.¹⁰⁶⁾

넓은 의미에서 이민교회란 조국을 떠나 타국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민족적, 언어적, 혹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민교회는 현지에의 동화정도에 따라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민족적,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배타적 교회이며, 제 2단계는 현지어를 사용하지만 민족적 문화적으로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환기적 교회이고, 제 3단계는 민족적, 문화적 전통은 선별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타민족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개방적 교회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민교회라는 의미는 이런 넓은 의미를 포함하긴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재미 한인교회를 일컫는 용어이다.

신대륙 발견 이후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민자의 나라로 부상하였으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온 이민교회가 크게 발전하였다. 한편, 강제로 이주한 흑인 노예들과 경제적,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민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하와이 한국계 이민자 들은 인천 내리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증노동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타국생활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민교회는 이렇게 초기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므로 한인 이민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한인 이민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타국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새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다민족사회로 민족 혹은 인종간의 갈등이 상존하지만 이민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다민족 문화권 속에서 함께 공존해 가고 있다. 한국 이민 역사는 짧지만 이민자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중류층으로 진입하였고, 한인들은 타 문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특유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민족 이민자들보다 짧은 기간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고학력자들의 이민으로 인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갖게 되거나, 계층적으로 소위 상류 사회에 진입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1990년 대 후부터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기대하며 찾아온 많은 이민자들 중에는 정당한 거주권을 얻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생존을 유지하

106) 이정석, “이민 교회론에 대한 발상” (풀러신학교 한국교회학 교수 논문, 인터넷 참조).

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1980년 초부터 한인 이민교회는 미국 전역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그 수를 증가하였다. 특히 한인들이 밀집하고 있는 LA에는 1,000여개의 한인 이민교회가 개척되었으며, 이와 비례하여 신자들의 수와 목회자들의 수 역시 급작스럽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뒤따랐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분열현상, 교회의 시기와 반목, 갈등은 이민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교회가 이민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면은 간과할 수 없다.

이민 초기부터 한인 이민교회는 한인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리 문화와 전통, 그리고 언어와 한글을 2세들에게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힘들게 노동하며 생존을 위해 땀 흘리는 이민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향과 위로가 되어 주었다. 이민교회가 고향을 떠난 자들의 정신적 위로의 장이 되면서 비신자들도 교회로 유입되었다. 이민자들 가운데 70퍼센트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처럼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위로와 나눔의 장이 되었다.¹⁰⁷⁾

한편 한국 이민교회는 이민 2세들이 십대에 접어들었던 80년대 후부터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운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교회가 운영하던 한글학교는 2세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였지만, 기대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주일학교 교육이 영어로 교체되면서 급기야 영어부가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2세들이 성년이 된 현재까지 영어부가 영어교회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의 제2단계의 이민교회가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지역적 이동으로 단결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많은 교인들이 타민족과의 결혼으로 미국교회에 동화되는가 하면, 신앙교육의 부재로 2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성인이 되면서 이민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이민교회는 미국교회보다 한국교회와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이민교회는 교단 적으로도 한국교회에 속하는 종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문제는 미

107) 이정석, “이민 교회론에 대한 발상.”

국교회에도 동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민교회의 정체성의 혼란은 앞으로 극복해야 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민 초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었다. 이민 온 사람들의 70퍼센트가 한인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지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들 가운데는 현지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 교회는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되어왔다. 이들은 교회를 그들의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공유된 문화를 나누는 곳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민교회는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반자로서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의 형태를 모방한 이민교회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민교회의 특성을 살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로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모든 봉사는 주일 하루에 제한되는 시스템으로는 이들 이민자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민교회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황은 한국교회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같은 구조와 조직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민자들의 삶의 동반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민교회가 가지는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과 소수의 직분 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의 조직구조 보다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들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에 의해 운영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이민교회만이 가지는 독특성을 살리며, 교회가 예배공동체인 동시에,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3. 가정교회의 중요성

전 세계 교회는 지금 교회 공동화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민교회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서구 교회가 경험한 교회의 공동화(空洞化)의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 역시 최근에는 교회성장이 둔화되는가 하면 일부 조사에서는 교회성장이 오히려 마이너스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70, 80년대의 급속한 교회성장은 이제 차츰 잠잠해지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교회성장둔화로 인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회가 21세기 이후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전통적인 교회는 새로운 위기에 처해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교인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구조와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회는 그 동안 익숙해져 있는 전통과 관습에만 매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둔감한 채 미래에 대한 준비조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교회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대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적 유산을 준비하지 못하는 서구유럽처럼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와 소수 교회 직분자들 중심의 교회의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칼 조지는 교회의 구조적 변화에 적합한 교회 형태는 메타교회 즉 변형된 교회로서 작은 사이즈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메타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교회가 대응책을 마련하므로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러한 대안으로서 소그룹은 중요성을 가진다. 가정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교회의 한 하부 구조로 속회나 구역 같은 작은 그룹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의 단점은 이런 소그룹들이 교회의 하부 구조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평신도들은 책임감으로 소그룹을 운영할 뿐,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교회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속회는 한 달에 한번 형식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 이상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속회 모임은 그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 한국교회의 속회도 그 역동성을 상실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속회와 달리 가정교회는 교회의 하부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평신도들을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여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고 그들을 목자로 만들어서 책임 있는 목양을 하도록 한다. 가정교회는 목회자들인 전담 사역자들이 전 성도들을 관리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목자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필요를 적시에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교회가 미래교회인 메타교회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가정교회는 대중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소그룹을 통해 성경의 주된 가르침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기초공동체라는 점이다. 여기서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마 22:34-40; 눅 10:25-28) 말한다. 가정교회는 소수의 가정교회 구성원(목원)들이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으로 체현(體現)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실험하며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소그룹 형태의 가정교회는 지역교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자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이다.

둘째, 가정교회는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제자를 삼는 일'이 교회의 존재이유라면 가정교회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지역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정교회는 찾아오는 구조에서 찾아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수월하다. 때문에 지역교회보다 가정교회의 경우 전도의 기회를 갖기가 더 수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에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 왔던 중국의 경우처럼 가정교회는 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있을 때라도 그 생명력을 지켜 갈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유통 구조가 되고 있다. 대체로 교회가 무력해 지게 되는 것은 형식적인 경건과 실천적인 능력이 상실된 권위주의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는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조직 교회들(institutional church)은 현실과 타협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쉽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였던 가정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가정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북한에서의 가시적인 지역교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지만, 가정교회는 현재까지 신앙의 생명력을 이어져 가고 있다.

넷째, 산업화 이후 발달된 기술 중심의 문화는 인간 소외현상을 가져왔다. 이런 현실에서 소그룹으로 형성된 가정교회는 신앙을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라는 점에서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현대의 문명 속에 사는 인간의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지만 정작 나-너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명사회에서 가정교회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만들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교회의 구조에서는 사역의 기회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골고루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구성원(목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의 기회를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그들의 은사에 따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써 전도와 사명으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4 장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와 가정교회

제 1 절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 갖기

지금까지 지적한 바대로 전통교회가 안고 있는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보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찍이 가정교회 구조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정교회는 중요한 대안임을 본 연구자는 확신을 갖고 가정교회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정착에 노력해 왔던 것이다.

1. 가정교회와 교회의 정체성 회복

교회 전문 컨설턴트로서 세계적 단체인 자연적 교회성장 연구(NCD)는 최근 세계 6대주, 32개국, 1,000여개 교회의 4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적 교회성장'이라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연구 팀은 420만개의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후, 교회 성장과 관련된 170개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소그룹이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다.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이루어 교회가 하는 제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교회는 단순한 형태의 제도화된 형식적 모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와 삶을 나누는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가정교회가 미래교회를 위한 대안으로서 이민교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에서도 새로운 목회 유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

다. 그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이 기존의 목회 스타일과 전통 교회 구조에 대한 한계와 갈등을 목회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회 구조에서는 성도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에 대한 목회적 돌봄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도들 또한 교회로부터 성도로서의 의무를 요구받지만,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교회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수동적인 교회의 일꾼으로만 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수동적인 순종만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통적인 구조와 전통에서 벗어나 성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와 관습에서 벗어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식하며 성도 각 개인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다. 가정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함으로써 지역교회에서와 같은 수동적인 참여를 지양할 수 있고, 개인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교인 각 개인의 은사에 따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가정교회이다.

이민교회에서는 이러한 가정교회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외로움을 느끼고,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 조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한된 한 두 명의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각 개인의 필요조차 알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교회는 구성원 개인의 고민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며 상담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함으로써, 개인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민교회는 강한 소속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성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정교회가 하는 역할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으로써의 가정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

존교회 보다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정교회에서의 초청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민교회에서 효과적인 목회사역을 위해서는 가정교회를 통한 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 건강한 교회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본 연구자가 1998년도 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개최하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면서였다. 이 세미나에서 처음 가정교회를 소개받고 가정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회 현장에서 가정교회를 실행한다면, 전통적인 목회 형태에서 겪게 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까지 감리교의 전통적 교회 조직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미래교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했다.

가정교회가 현대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칼 조지는 미래교회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메타교회가 되어야 하며 소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⁸⁾

메타교회가 되려면, 성장과 재생산의 바람직한 건강상태에서 유지되는 필수적인 업무그룹 외에도 조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발달된 체제와 돌봄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양육 그룹인 소그룹이 필요하다.¹⁰⁹⁾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세미나에 참석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밴나이스 한인 연합 감리교회로 파송되면서, 본 연구자는 새 임지에 부임함과 동시에 가정교회를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통적인 이민교회의 형태인

108) Georg,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143.

109) Ibid.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로서의 결단과, 가정교회가 미래목회의 대안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건강한 교회를 위한 대안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 2 절 가정교회 조직과 구성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조직과 구성은 내용을 담는 일종의 용기(用器)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많은 도전이 있지만 가정교회의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가정교회의 기본 조직

가.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

가정교회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조직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의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변환시킬 때 많은 저항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적인 교회 조직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기존 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교회의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조직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성도들에게 가정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정교회가 주는 유익과 장점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 역시 가정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단과 성경공부 소그룹을 통해 가정교회가 주는 유익을 역설하고 가르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단의 노력의 결과로 교회 전체가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성도들 역시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면 조직 만들기에 착수해야 한다.

가정교회 조직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목회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도

들에게 가정교회의 유익과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데 목회자는 먼저 성도들에게 가정교회가 왜 필요하며 가정교회가 어떤 유익이 주는가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목회자는 온 교회가 가정교회에 대한 하나의 동일한 비전을 갖도록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교회가 단순히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위하 수단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정교회가 교회와 지역 그리고 성도들 개인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비전의 공유는 교회가 함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가정교회 지도자 선정

가정교회의 사활의 여부는 누가 가정교회의 지도자 즉 목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이며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은 재미있는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 선장이 되고자 할 때, 그 배를 훌륭히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선장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선장이 되면 장차 그 배는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¹⁰⁾

러스킨의 말은 무엇보다 먼저 선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배를 움직이고 항해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선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기 위해서 선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정교회에서의 목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가정교회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사역자이며, 가정교회 구성원들인 목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이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교회의 장로나 권사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목자가 되어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사고이다. 교회의 장로나 권사이지만, 그 사람의 자질이 지도자로서 부족하

110) 맨나이스 가정교회 세미나 강의록에서 인용.

고, 인격적인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 그는 목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일정기간을 두고 자원하도록 하였다. 교인들 가운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명감을 느끼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원한 사람의 수가 부족하여 결국 담임목사가 평신도들 가운데 믿음과 덕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직접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 목자들 가운데는 교회의 중직자들인 장로와 권사들도 있었고, 소수의 집사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25명의 목자 후보자들을 통해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정교회는 시작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목자로 선임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책임감을 자각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다. 목장(가정교회) 조직

가정교회의 중요한 원칙은 가정교회의 목표를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 지향적으로 설정하되 교회의 구조는 단순화 시키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단지 사람들을 노닥거리게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모여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목적을 위해 역동성 있게 집결시키려는 교회의 구조를 단순화 시킨 것이다. 111)

교회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교회 조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모이는 집회를 축소시키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인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의 기능과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에서 모이는 정기 집회를 축소해야 한다.

1998년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임 당시 교회의 정기 집회는 주일 1,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매 월 한 번씩 모이는 새벽기도회가 있었다. 이런 많은 정기 예배 중에 매일 모이는 새벽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그대로 두고,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를 폐지하였다.

111) Larry Stockstill, *셀 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44.

그리고 각 선교회는 상회 기관과의 관계성 때문에 완전히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상만으로는 존재하되 실제적으로는 그 기능을 축소시켰다. 교회 운영을 위한 조직 역시 기본적인 임원회만 남겨두고 다른 기관들은 그 기능을 축소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에너지를 가정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기존교회의 구조와 전통에 익숙한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지 않으면 가정교회 시작 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지혜가 필요했다. 고착화된 전통적 교회의 정기 집회를 축소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기도와 설득을 통해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는 결국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야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2000년 1월 1일부터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한 주일 예배 후, 전 교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자를 따라 자신들이 소속할 가정교회(목장)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존교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었다. 교인들은 각자 자신들이 선호하는 목자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조직하였다.

교인들이 의사를 기명으로 하게 되면 목자들의 자존심이나 성도 개인의 자존심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기명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소속하고 싶은 가정교회의 목자의 이름을 담임목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일부 목자들에게 성도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원들의 수를 평준화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하고 싶은 목자들을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까지 기록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 목장에 3가정에서 5가정 정도가 소속되도록 하였으며, 평균 가정교회 구성원의 수는 1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2. 가정교회의 구성인원

가정교회 구성인원을 12명 정도로 제한한 것은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 수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처음 웨슬리가 속회를 조직할 때도 12명을 기본 단위로 하였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12명이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단위임을 알 수 있다. 1890년에 발행하여 사용했던 감리교 최초의 장정 *미이교회 강령*의 총례 제 30항에는 “한 속회에 12사람씩 두고”¹¹²⁾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의 너무 많게 되면 생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므로 가능한 한 5가정 정도를 중심으로 12명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열둘의 원리(principle of twelve)는 성경 전반을 통해 되풀이 확인되고 있기 것이기 때문이었다. 12족장이라든지, 이스라엘 12지파, 12 사도들,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12기둥들 그리고 많은 성경적인 재료들이 ‘조직 관리의 숫자로서 이 열둘이라는 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3)

미국 루니지아나 베어커 시에 있는 베다니 세계 기도센터 교회 담임목사인 래리 스탁스틸(Larry Stockstill)은 1983년 그가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후, 600여개의 가정교회와 6,000명이 모이는 성도들을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였는데 1998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에 80명의 선교사와 23개국에 가정교회 네트워크 조직을 두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성공적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역을 “12 원리의 기초”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¹¹⁴⁾

예수가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우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열둘의 효율성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열둘은 가장 완벽한 숫자였던 것이다. 가정교회 구성인원인 목원의 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숫자가 개인적인 관계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12명으로 구성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까워서 서로를 돌보는 자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사역자들의 필요를 줄일 수 있고, 목원들이 갖고 있는 잠재된 은사들을 개발하여 선교적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한다.

교회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관심과 돌봄을 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회가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이들은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결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가정교회를 중심으

112) *미이교회 강령* (1890), 9, 박춘화, *감리교회 속회*, 144 참조.

113) Stockstill, *셀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141.

114) Ibid., 142.

로 한 열두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영적인 조언과 사명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목원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확대해 나가는 이점을 가진다.

3. 가정교회의 지도자(목자)

가정교회의 사활은 누가 지도자(목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이다”(Leadership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교회의 성패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목자 선정은 목자로서의 인격적 자질과 은사에 대한 확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 자신뿐만 아니라 위탁된 목원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신된 목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자이어야 한다.

첫째, 목자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목자는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교회의 리더십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데 헌신한다. 셋째, 다른 가정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들과 상호교류하면서 목회정보를 나눈다. 넷째,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다섯째, 목자는 모든 교회의 정기 모임에 본을 보여야 한다. 여섯째, 목원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도록 노력한다. 일곱째, 가정과 직장에서도 생활에 본을 보이도록 한다. 여덟째, 봉사 생활 즉,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에 인색하지 않음으로써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목자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그에게 사역하도록 부르신 소명에 응답한 자이어야 하며, 평신도이지만 구속의 은총을 확신하고 사도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목자야 말로 목장을 책임진 목회자로서 그 사명은 무한 책임을 갖게 되며, 목자는 실제적인 가정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명을 자각하고 헌신한 목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목자는 가정교회의 목양자이기 때문에 목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성장을 격려하고, 교회가 하는 성경공부나 훈련에 목원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지도

한다. 둘째, 목원 중에 예비 목자를 세워 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양육하고 보살피며 그의 인도자(mentor)¹¹⁵⁾가 되어야 한다. 인도자로서 목자는 예비 목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목원들이 주중에 한 번씩 모이는 가정교회에만 만족하고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넷째, 목자는 목원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목원들 개인을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소정의 목장 보고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담임목사의 조언을 듣도록 한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담임목사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구한다. 일곱째, 목자는 정기적인 목자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덟째,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 신앙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서를 읽거나 자신의 영적 관리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심방이나 전화를 통해 목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자주 친교의 시간을 가짐으로 목원들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한다.

목자가 자신의 목장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위탁받은 목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종의 질서와 같다. 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목자들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며, 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목자가 자기 목장에서 신뢰를 상실한다면 그 목자는 목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그 목장은 더 이상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목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자가 자신의 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다른 목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경쟁심을 버리고 다른 가정교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교회는 다른 가정교회와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가정교회 지도들과도 우정을 나누고 동료의식을 갖는다. 셋째, 가정교회를 개인의 왕국화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정교회를 통해 목자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왕국의 주인행세를

115) 멘토는 인도자라는 뜻으로 인도 받는 사람(mentoree)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Bobb Biehl, 멘토링,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37.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제나 목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넷째, 다른 가정교회에 대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가정교회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담임목사에게 먼저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목자는 목원들의 개인적인 비밀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 여섯째, 목자는 목원들의 아픈 상처를 지적하거나 들추어내기 보다는 은밀한 중에 격려와 위로를 통해 치유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일곱째, 목자의 직분에 대한 소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하나님은 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성숙한 목자가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116)

제 3 절 가정교회 목적과 훈련

가정교회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목적의 선명성이다. 왜 가정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분명해지면 여기에 동참할 지도자들을 훈련을 통해 길러 내는 일은 가정교회를 정착 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교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지도자를 훈련하는 일은 급선무이다.

1. 가정교회의 목적

가정교회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과 그 본래적 사명을 회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정교회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나라 확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인 지역교회들의 조직과 구조가 시대적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반면, 가정교회는 그 규모가 소규모라는 특징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기가 수월하며,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 또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화를 경험하는 현 시대에 복음전파에 대한 시대

116) 편찬위원회, *앤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정교회 목자 훈련용 교재* 참조.

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지역교회들의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집회 혹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할 뿐 자신이 복음전파의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교회에서는 목원들 스스로가 복음전파의 사명자로 부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전파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가정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초기 기독교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의심의 의지가 없다.

가정교회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며, 기존 교회 구조를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시도이다. 전통적인 지역교회에서도 구역 또는 속회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교회에 속한 하나의 하부구조의 역할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가정교회는 지역교회에 속한 하나의 부속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경우 교회 안에 가정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십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지역교회와 가정교회와의 관계는 그 기능상 교단과 지역교회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교단은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신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자산을 관리하거나 목회자들을 파송하거나 안수하는 일을 하듯이 지역교회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지역교회의 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지역교회 역시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

루이스 바렛(Lois Barrett)은 그의 저서 *가정교회세우기 (Building the House Church)*에서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공동식사를 하며, 배구 시합을 하고, 같이 주말 나들이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교 단체는 아니다. 가정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대형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다. 이들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공부 모임은 아니다. 이들은 가정교회로서 지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선

교단체는 아니다. 이들은 지역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연합회는 아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교회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마주 대하며, 격려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결정하고, 행동을 같이 한다.¹¹⁷⁾

가정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모든 기능을 다하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향성과 목적이 있다.

2.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전통적인 교회로 이미 정착된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변환하게 될 경우, 상당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직면하게 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반대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의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 내의 지도자 그룹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의 리더들인 직분자들에게 가정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설득도 필요하지만,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담임 목회자와 개인적인 유대를 가짐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경우는 가정교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약 1년 6개월 동안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가 개발한 13주 과정의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성경 공부 반은 성도들 개인의 편의를 고려해 주중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시간, 금요일 오전과 저녁 시간에 개설되었다. 성도들은 주중에 자신의 직업이나 형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이들 성경공부 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기대이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공부 반에 참석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17) Barrett, *가정교회 세우기*, 14-15.

성경공부 반 개설 제 1기에 약 100여명이 등록을 하였다. 성경공부는 13주 과정이었으며, 한 주에 한번, 매번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13주 과정의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 가운데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담임목회자의 비전에 동의하는 이들이 점차 생기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져 갔다.

전통적인 지역교회의 구조에 익숙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능하면 큰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전체 성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 직분자들의 태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들에게 가정교회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역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모델교회를 견학하게 하고, 가정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를 체험케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부임 후 약 1년 만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평신도들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교회 지도자들 중 12명을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두어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현장체험을 하고 돌아온 이들도 일제히 가정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담임목회자에게 협력하게 되었다. 현장체험과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에의 참석은 교회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가정교회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비전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교회 전체 성도들 역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가정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에 협력하면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하나의 비전을 향하도록 형성한 후에는 가정교회 핵심 리더들인 목자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가정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목자로 선발된 25명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하였다. 목자로 선발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자의 삶'이라는 지도자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였는데, 이 성경공부 반은 매주 한 차례씩 13주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참여한 예비목자들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신앙적인 자세와 소양, 덕목, 그리고 사역의 한계 등을 교육받았으며, 그 외 성경공부 과정 중에 다양한 커리큘

럼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예비목자들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훈련을 위해서는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집중적인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목자로서의 전문 소양과 책임, 사명감을 자각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미 가정교회를 실시하고 있는 타 교회 목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담을 듣기도 하였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해야 할 책임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목자들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원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목자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담임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담임목회자가 가정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을 훈련하고 바른 지침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초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담임목회자는 우선 목자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모였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걸쳐 이루어졌다. 이 모임의 처음 1시간동안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담임목회자가 각 목장에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목장 운영을 위한 자료를 공급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30분 정도는 함께 목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은 목자들 상호간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서로 많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주었다. 그 외에도 목자들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에는 기도원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목자 모임을 따로 가졌다. 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가정교회가 자리 잡아 가기 시작했다.

가정교회 사역 초기에는 목자들 가운데는 사역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소수이긴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때 마다 연구자는 담임목회자로서 그들과 상담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였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책임을 맡은 목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직분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담임목회자는 대체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이런 어려움에 대체할 수 있는 기민함을 갖추어야 한다. 담임목회자는 그 밖에 이

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자들 외에도 예비 목자 제도를 두어 앞으로 목장이 분가(分家)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 목자를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회 안에는 목자 뿐 아니라, 목장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말씀을 지도하는 교사도 있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가정교회마다 한 사람씩을 교사로 두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이 교사들은 모임도 따로 가졌는데, 모임은 수요일 예배 후에 있었으며 모임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다. 이 모임은 부목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지난주일 담임목사가 선포한 설교 내용을 요약하여 나누어 주고 그 내용을 목장 예배 시간에 반복하여 전하도록 하였다.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지도할 때, 담임목사의 설교를 반복하도록 한 것은 교사들 가운데 성서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가정교회의 말씀을 일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또한 교사 자신의 경험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가정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찬양을 맡은 찬양 사역자, 헌금을 관리하는 재무담당 사역자, 선교 지를 돕는 선교 부 전담 사역자, 자녀들을 돌보는 교육 담당 사역자, 친교를 위한 담당 사역자 등 목장의 형편을 따라 이러한 사역을 분담함으로써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정교회는 점차 정착되어 갔고,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가정교회 운영 지침

가정교회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은 대체로 담임목회자이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담임목회자는 가정교회의 전체 책임을 맡게 되고, 목자들을 소집하고, 대변하며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먼저 목자들 가운데 대 목자 한 사람을 두고, 지역을 세분화하여 4개 목장의 목자들의 모임인 지역 목자를 두되 네 명의 목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또 예비목자를 두어 목장이 분가할 것을 대비하고 목장을 돕도록 하였다. 목장 안에는 찬양 부장, 선교부장, 기도부장, 친교부장, 회계와 서

기를 두어 기록과 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목자장은 담임목사를 칭하는 말이다. 목자장의 임무는 계속해서 가정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지역교회 성장을 꾸준히 도모하도록 목장 전체를 감독하고 각 가정교회 목자들을 양육하며 훈련하는 하는 것이다. 목자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 또한 목자장이 해야 할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목자장은 목자들을 상담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목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대 목자는 각 목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자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 수시로 목자장인 담임목회자에게 보고하고 목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자 모임을 주관하며, 수시로 목자 훈련을 위한 세미나를 관장한다. 대 목자는 모든 목자들의 멘토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생활과 신앙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헌신적인 지도자이어야 한다.

4개의 목장을 묶어 지역이라고 하였는데, 지역 목자는 가능한 장로들로 구성하였다. 해당 지역에 장로가 없는 경우는 권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목자장과 목자들 사이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목자들의 임무이다. 이를 위해 지역목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목장의 목자 모임을 주관하고 목장 운영에 대한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제안들을 대목자와 협의하여 목자장인 담임목회자에게 보고한다.

목자는 가정교회의 핵심적 구성원으로 가정교회의 승패는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목자의 자질과 헌신은 중요하다. 때문에 목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름 받은 소명자라야 한다. 목자는 평신도이지만 사도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목자가 자신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목자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진보를 보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목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자의 임무 중에는 목원 중에서 예비 목자를 발굴하고, 그를 멘토로서 지도하는 것도 포함한다. 예비 목자를 두는 것은 목장이 성장하여 12명 이상으로 발전하게 될

때 목장을 분가하기 위해서이다. 목장이 분가하게 되면, 목자는 자신이 양육한 예비 목자를 지금까지 섬기던 목장의 새로운 목장으로 세우게 되고, 자신은 새로 분가된 개척 목장으로 사역을 옮기게 된다. 목자는 이러한 분가를 예상하여야 하며, 예비 목자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양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을 통해 목자로서의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첫째, 목자는 예비목자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며, 서로의 삶을 나눈다. 둘째, 목자는 예비 목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셋째, 목자는 예비 목자가 된 목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목자로서 갖추어야 할 과정을 이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가 실시하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하고 '생명의 삶'과 '제자의 삶'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넷째, 앞으로 목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서를 추천해 주고, 예비 목자로 하여금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한다. 다섯째, 교회가 권장하는 프레스 디아스(Tres Dias) 영성 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목자는 매사에 목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이므로,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목원들의 영적인 부모와 형제로서 가정교회가 가족관계 이상의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늘 열린 마음으로 섬김의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목원이란 목장의 구성원을 말한다. 목장을 처음 편성할 때는 목자 중심으로 목원들이 모이게 되므로 목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가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목원 구성원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원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목원 간에 서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도록 해야 하며,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원 간에 지켜야 할 개인적인 비밀이나 사생활은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한 목장의 목원이 되면 상호관계를 갖게 되는데,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가정교회에서 처음 초청을 받아 목장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목원들은 초청받은 사람이 가정교회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정교회를 통해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 분위기를 느끼도록 돕고, 교회까지 인도하도록 하되, 교회 출석은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자는 목원 전원에게 사역의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책임감 없는 목원이 한 사람

도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명이 모이는 목장이면 참석하는 12명 전원에게 직책을 맡겨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알게 하고, 그 가정교회에서 각 개인이 모두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장에서의 기본적인 직책은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와 유사하다.¹¹⁸⁾

제 4 절 가정교회 사역의 실제

가정교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마무리 한 후에는 교회의 실제적인 사명인 예배와 교육, 친교, 선교와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정교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1. 예배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가. 가정교회 예배의 중요성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때문이기

118) 뱀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가정교회 운영지침서를 초안할 당시 박승로의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와 최영기의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 (1) 찬양 부장: 목원 중에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 모임 시에 찬양과 반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아노가 없으면 기타나 키-보드도 가능하며, 다른 악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찬양 부장은 목장 모임 전에 목장에서 부를 찬양을 미리 준비하여 목원들에게 배부한다.
- (2) 선교부장: 선교부장은 지역과 세계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목장의 형편에 따라 선교지를 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일을 책임질 뿐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나 사역자들과의 연락하는 일과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 (3) 기도부장: 목원 중에 특별히 기도 사역에 헌신할 만 한 자를 발굴하여 기도생활에 본이 되도록 하고, 중보기도 할 제목이 있을 경우 기도회를 인도한다. 기도부장은 목장의 발전을 위해 특별기도 모임을 주관할 수도 있다.
- (4) 친교부장: 목원 중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친화력이 있는 이가 있으면 그를 선정하여 목원 간에 교제를 원할 하게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친교부장으로 하여금 야외 모임을 주선하게 한다든지 목원들과 함께 캠핑이나 수련회도 계획하게 한다.
- (5) 서기: 서기는 목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며, 목장의 현황을 보고하고 목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목자장인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 (6) 회계: 회계는 목장의 현금을 수합하며 계수하고 은행에 입금하고 지출하며, 회계장부를 만들어 현금을 관리한다. 연말에는 연중에 출입금을 결산하여 교회에 보고한다. 그러나 목장의 재정은 교회가 관여하지 않고 목장 내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도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119)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예배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그것이 작든 크든 공동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예배는 중요한 의무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¹²⁰⁾

리처드 포스트(Richard J. Foster)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 특징을 그의 저서 *영적 성장과 훈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특징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거룩한 기대' 속에 모였다는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간다고 믿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모인 건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진동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전에도 발생했었다(행 2:43).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음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행 5:1-11; 9:36-43; 20:7-10).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과 모세와 아론처럼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중재자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렵고 영광되고 자비하신 임재 앞에 들어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모였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접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모였다.¹²¹⁾

사도행전 2장 43절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행 2:43)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수행하였던 예배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예배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

119)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119.

120) Ibid., 121.

121)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232-233.

나눔을 찬양하였다”(행 2:47)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예배였다. 초기 기독교 교회 신자들은 기쁨에 찬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에 참여하였고, 이 예배는 성도들끼리 성찬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라는 구절은 예배를 통해 모일 때마다 서로 함께 하는 성도의 교제가 식사를 포함하는 친밀한 교제였음을 말해준다(행 2:46).¹²²⁾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지역 교회가 하고 있는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가정교회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이 가정교회가 교회안의 작은 교회라는 의미이다. 가정교회에서의 예배가 비록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이지만 그것이 지역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중요하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목원들은 예배의 경건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만약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예배의 준비가 소홀하거나 예배의 경건성을 잃게 된다면 가정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위한 준비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물론, 순서를 맡은 자들 역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교회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4장 24-31절은 초기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 뒤,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초기 기독교 예배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하는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 되었으며, 보다 힘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예배가 성도들의 결속과 영적 에너지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가정교회의 예배를 주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가정교회에서의 예배를 중요시하였다.

나. 가정교회에서의 예배

122)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47-48.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임은 각 가정교회의 형편에 따라 모이도록 하였으므로 가정교회가 모이는 장소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목자의 가정에서 모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에 따라 목원들의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였다.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야외나 기도원, 교회에서 모이는 때도 있었다. 모임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예배 단에 세우고 촛불을 켜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예배를 위해 만든 이 나무 십자가는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수여한 것이다. 교회는 처음 목자로 부름 받고 훈련이 끝난 목자들에게 목자 파송식 때, 목자 임명장과 함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정도의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수여했던 것이다. 이 십자가는 목자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예배 단을 만들어 그 위에 세워 두어, 예배의 경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가정교회의 회계는 예배 시간에 사용되어질 헌금함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단에 세워진 십자가 주변으로 목원들이 원형 형태로 등글게 앉도록 한다. 원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일체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가정교회의 결속과, 예배 인도자와 회중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예배 순서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각 목장의 형편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만일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새 목원들이 왔다면, 경우에 따라 예배형식을 조절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간단히 찬송하고 기도하므로 처음 초청받아 온 사람으로 하여금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한시적일 뿐, 초 신자가 어느 정도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기독교 공동체가 수행해야하는 일 중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 후, 일반적인 순서를 갖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예배는 정한 시간에 목원들이 모이면 먼저 찬양 부장의 인도로 약 20분 동안 복음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찬양을 인도할 때는 제한된 시간에 여러 곡을 부르는 것보다는 한 두곡을 반복하여 부르도록 함으로써,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찬양이 끝나면 약 5분 정도 교회 소식과 광고를 전한 다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는 지난주일 담임목사가 한 설교를 다시 요약하

여 들려줌으로써 지난주일 들었던 설교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서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약 15분 정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한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준비된 식사를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각 가정교회의 형편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한 주간 동안 목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나 영적인 고민,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은 가정교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다. 나눔의 시간이 끝나면 기도부장이나 목자는 각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약 15분 동안 중보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목원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준다. 전체 모임은 선교 지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처음 온 이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가진 후 마치게 된다. 예배의 순서는 각 가정교회마다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순서가 일반적으로 목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이다.

2. 교육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가. 가정교회의 교육적 사명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교육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상)는 “대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준다.¹²³⁾

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교육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져야 할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한글 성경에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네 개의 동사 형태로 나타나지만 헬라어 사본에서는 “제자를 삼아” 하나만 동사형이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제자를 삼아”를 직역하면 “제자를 만들라(make disciples)”이다. 나머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라”는 세 개의 분사는 제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가

12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47.

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한 후에 마지막에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한 것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사도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다.¹²⁴⁾ 가정교회의 존재이유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3년의 그의 사역기간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수행하였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생활하였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체화하였다. 열두 명의 작은 공동체는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¹²⁵⁾ 이렇게 훈련 받은 제자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초석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은 이방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의 복음전파과정과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배우는 곳이며,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곳이다. 가정교회의 구조가 소규모이며 서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신앙과 생활의 훈련의 장으로서 가정교회의 역할을 보여준다.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개인에 대한 지도와 직접적인 훈련을 유도하기 어렵다면, 가정교회는 제한된 소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 개인을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차이에 따른 훈련도 가능하다. 가정교회가 12명 정도의 소규모로 모이는 것은 역시 목원 개인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가 12명을 제자로 부르고, 제한된 소수를 교육하고 훈련했던 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정교회

예수로부터 직접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의 예수와 함

124)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48.

125) Gareth W.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4), 317-318.

게 생활하면서 예수의 인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다. 이들은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함으로써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인격을 성숙시켜 나갔던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영적 지도자들 역시 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작은 공동체를 통해 가르치고 훈련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다.¹²⁶⁾ 그들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도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정교회들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나를 본받아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우리와 너희에게 본을 보인대로 행하라”(빌 3:17)고 부탁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교회 사역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제자를 만들어 갔다.

소그룹의 장점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교회 역시 소그룹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정교회에서 사도와 같은 기능을 하느냐하는 것이다.

가정교회 목자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으로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할 책임이 있다. 가정교회의 목자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빌 3:17)고 한 것처럼 생활과 신앙의 일치로 보여 목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목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목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목자장으로서 담임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 즉 목자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일이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자체가 소그룹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돌봄이 가능하고, 개인의 차이에 따른 개별 교육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정교회는 비록 소규모 공동체인긴 하지만 그 장점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적합한 교육공동체임이 분명하다.

126)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323.

3. 친교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가. 만남의 장으로서의 가정교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만남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대의 산업화와 대중화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이러한 측면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며, 그들의 관심사를 공유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를 나눌 대상을 찾고자 한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교회의 구조 내에서는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참된 교제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역교회의 경우, 담임목회자 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담임목회자가 성도 개인들의 나눔까지 모두 수용해줄 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경우는 소규모의 목원들과 목자, 대목자와 목자장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가정교회는 소수의 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목원들은 그들의 목장에서 그들의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 함께 만나서 신앙과 생활의 전반에 관한 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정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목원들은 자신의 문제를 나누면서 다른 목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함께 다른 목원들의 고민에 참여할 수도 있다. 목자는 자신의 목장에 속한 목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화할 수 있으므로 목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가정교회는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공동체에 속한 목원들은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에 대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의 유대감 형성과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의 공

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정교회에 속한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정교회 목원들 서로가 타인을 알아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만남과 예배를 통해 삶을 나눔으로써 목원들은 서로의 관심사와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나눔을 통해 목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타인들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특별히 가정교회 모임에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은 이러한 나눔과 타인을 알아가려는 노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목자는 이 시간이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나눔의 시간이 진솔하게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전통적인 교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나눔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원들의 교제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교회에서 연휴나 특별한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정교회 경우는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목원들이 휴가 일정을 맞추어서 여행을 하거나 수련회를 마련하여 2박 3일 또는 1일 간 목원들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했다.

셋째, 목원들의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 조를 만들어 주중에 한번 이상 만나도록 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1조는 2명으로 구성하며, 이 조는 한 달에 한번 또는 격주로 바꾸어서 다양한 목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가정교회가 돕는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교제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목원들로 하여금 가정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연중 한 차례 혹은 격년으로 방문하여 함께 봉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목원들이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은 목원들로 하여금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참여의식, 목원들끼리의 형제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섯째, 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교회를 위해서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목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목원들로 하여금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봉사는 목원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가정교회에서의 목원들 간의 교제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목원들이 가정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치유의 장으로서의 가정교회

사람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으며,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자기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형식적인 교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주일 하루에 모든 모임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이러한 형식적인 교제를 넘어선다.

가정교회에서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목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하거나, 요구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경계하는 일도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점은 공동체를 위한 다양성과 역동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공동체의 역동성이 되기 위해서는 목원들 각자의 열린 마음과 상대에 대한 수용,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인종이나 남녀, 종과 주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는 목원들의 차이를 고려하되 차별을 두지 않는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사회적 모든 범주를 넘어서 모든 차별을 제거하였다.¹²⁷⁾ 처음 가정교회에 참여한 사

127)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모델,” *미주 크리스찬 헤럴드*, 1998년 8월 2일

람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만, 모임을 거둬하고 교제의 기회를 가짐으로 이러한 것은 점차 줄어들고, 서로 이웃과 형제로서 자주 만나고 예배하며 교제의 기회를 가짐으로 이웃은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가족공동체로 승화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성도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교제의 장이 되고 있다.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목원들은 말씀을 통해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가정교회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교회는 이처럼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잃은 자들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행하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지배하는 자가 없으며 지배를 받는 자도 없다. 가정교회의 모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벧 2:3)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가정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목원들에게도 이러한 교제와 실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4. 선교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가. 가정교회의 선교적 사명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전하는 것이다. 선교는 어떠한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 속한 것이나, 어떤 행위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가지시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벧후 1:3)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 128)

자,

128)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46.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혹은 사회적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며,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선교를 위한 노력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 증거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상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상이다. 선교 즉 기독교의 대외 활동은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 등,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 도움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¹²⁹⁾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배, 교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선교에 모든 에너지를 집약시키므로 가정교회가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결집된 목원들이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속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사명에 참여한다. 가정교회는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줌으로 가까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할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 목장이 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역을 돕는 일을 함으로 간접적으로 선교사역에 참여한다. 각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안에 선교부를 두어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각 가정교회의 선교부장은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의 연락을 통해 선교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선교지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한다. 어떤 가정교회(목장)는 선교팀을 구성하여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에 있는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정교회로 하여금 선교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딤후 4:2)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가정교회는 이 사명에 충실할 때만이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가정교회의 선교 대상은 지역과 인종

129)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46.

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선교의 대상을 불신자들에게 두고 있다. 가정교회는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초청하기 쉬운 구조이다. 지역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많은 장애요소들이 있지만,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므로 이웃의 불신자들을 초청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초청 받는 이들도 크게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가정교회는 초대된 불신자들에게 교제와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므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가정교회가 이렇게 불신자를 선교의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정교회를 통해 전도된 사람들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다. 기존 교회의 경우, 전도라고 하면 일단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불신자의 경우 갑작스럽게 교회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등록한 후 교회에 정착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에 등록은 하였지만 몇 번 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불신자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교회의 경우는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적어 전도하기도 쉽고, 이미 친교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착율도 높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교회 목원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나. 선교 동역자로서의 가정교회

가정교회에서는 한 목장이 한 선교지를 정하여 선교사역을 돕도록 함으로써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목장이 한 선교지를 정하여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사역을 돕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가정교회에 선교부를 두어 선교부장으로 하여금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서신이나 이메일을 통해 선교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며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선교에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어떤 가정교회(목장)에서는 선교 팀을

구성하여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에 있는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일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정교회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므로 목원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심어 주기도 한다.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나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셨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다. 예수는 “병든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가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이 있다.

셋째, 가정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목원들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목원들 스스로가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목원 전체가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가정교회는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된다. 또한 선교는 목원들의 결속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되며, 참여하는 목원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정교회는 선교에 참여하는 목원들로 하여금 각 자의 은사 혹은 재능, 직업을 통해서 선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목원들은 이러한 선교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통해 하나님나라 확장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가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¹³⁰⁾

5. 봉사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가. 섬김으로서의 봉사

130)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47-148.

플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는 “당신이 예언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손에 든 홀(笏)이 아니라, 평이라는 것을 터득하기 바란다”¹³¹⁾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나은 명예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예수와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전, 서로 누가 더 크냐하는 문제로 다투었다(눅 9:46). 이런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예수는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라고 교훈하였다. 예수가 보여준 이 섬김의 교훈은 그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생활의 원리가 되고 있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섬김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이다. 성경은 교회 안에 사회에서 존재하는 계층구조나, 조직체제에서 종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성경은 교회 성도는 모두 동일하게 한 몸으로써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지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누가 더 중요하다거나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관념은 교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더 권위 있는 자라거나 누가 하위에 속하였다는 계층구조 역시 있을 수 없다. 교회의 성도는 모두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일뿐이다. 다만 교회에서 직분을 두는 것은 권위가 의해서가 아니라 기능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¹³²⁾

현대교회가 지니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은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봉사와 섬김을 통한 이웃사랑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교회를 통해서는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 목원들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봉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나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봉사가 사랑의 수고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봉사가 율법이나 규율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131)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182.

132) Ibid., 184.

배우게 된다.

가정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함으로써의 섬김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정교회에서의 목자의 지위 역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것이다.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목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온 주님을(마 20:28) 따르는 것을 사역의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봉사

그리스도인은 보상을 위해서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섬김과 봉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 봉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의무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권리이다. 예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고 가르쳤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자기희생적 봉사를 통해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봉사공동체이다.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목원들은 이러한 자기희생적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가정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현대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나눔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봉사공동체로서 가정교회는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훈련한다. 때문에 각 가정교회는 가까운 목원들부터 시작하여 지역 사회와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봉사의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봉사에 실제적인 도움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상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봉사는 희생을 요구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과 시간과 몸이 함께 하여야 한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신도의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해야 할 두 번째 봉사는 실제로 도움을 주는 봉사라야 한다. 이 말은 사소한 일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에는 어디에나 이렇게 서로 도와주어야 할 사소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가장 비천한 봉사를 하기에 너무 훌륭한 사람은 아

무도 없다.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출세의 중요성을 너무 증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¹³³⁾

가정교회는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연중의 봉사 계획을 세우고 목원들로 하여금 봉사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가까운 목원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봉사를 하도록 하게하고, 보이는 이웃들에게 먼저 섬김의 도를 행함으로 봉사의 삶을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범위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확장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정교회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목장별로 지역사회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주는 일을 수 년 동안 실행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계절이나 추운 겨울에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생활 용품들을 제공함으로써 목원들로 하여금 봉사가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였다. 가정교회 목원 중에는 처음 이민을 온 이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목원 전원이 그 가정의 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직장을 알선하는 일부터 모든 필요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133) Dietrich Bonhoeffer,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1952), 99.

제 5 장

가정교회를 통한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 회복

제 1 절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의 긍정적 변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역사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신학, 전통에 의해 본래적인 교회의 기능이 변질되기도 하고 역할이 손상을 입기도 하였다. 때문에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한 노력은 그 시대마다 있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가 제도화 되고 교권주의로 흘러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교회의 위기를 맞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가정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 회복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이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시도되고 있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정교회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도 교회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1. 가시적(可視的) 변화

가. 양적 성장과 교인들의 역할증대

가정교회를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가정교회 본래의 의도와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기독교 역사 초기의 가정

교회를 모델로 하는 ‘건강한 교회 성장’(healthy church growth)¹³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가시적 성장을 동반한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양적 성장도 따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역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정착하고 실시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 역시 이러한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교회를 실시한 2000년부터 매년마다 새 신자들의 수가 배로 증가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가정교회를 실시한 이후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 중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초신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가정교회를 실시하기 전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20개로 시작했던 가정교회는 2년 동안의 분가를 통해 30개로 증가하였고, 성도들의 주일 예배 출석율도 높아졌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교회 내 역할의 증대도 가져왔다. 특히 가정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자들은 목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활동과 사역에 참여하였다. 평신도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심방하고 기도해 주고 섬기므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소중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의 책무를 잘 수행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성숙과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도생활과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목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가정교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어진 봉사를 기쁘게 수행했으며, 섬기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가정교회에서의 이러한 봉사와 책무는 목자와 목원들에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사들을 발견하는 기회도 되어주었다. 때문에 목자들과 목원들은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다. 가정교회는 그동안 사장(死藏)된 평신도들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되었다.

134)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Schwartz)가 전 세계 1천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뒤 교회 성장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성장 이론은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약칭 NCD라 부르는데 그가 분류한 는 교회 유형 중에 ‘건강한 교회’(health church growth)를 말하고 있다.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277.

나. 교회 조직의 효율성

가정교회를 실시한 후에는 교회 조직이 이전보다 단순화되었다. 물론 임원회도 조직되어 있고, 각 부서와 위원회가 형식상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상회와의 관계 때문이고 실제, 전체 성도들의 의견을 가장 집약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것은 매주 한 번씩 모이는 목사회의를 통해서였다. 이 목사회의회가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점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목사회의회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창구가 되었으며, 모든 일은 이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였는데, 이전처럼 임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서로 의견 대립이 거의 사라졌다. 가정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제반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족들 역시 많이 해소되었다.

가정교회를 시작한 후 봉사활동도 더 활성화 되었는데, 각 목장별로 봉사 계획을 세우고 각 목장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계획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없어졌다. 가정교회를 실시하기 전에는 봉사에 참여 하면서도 불만의 소리들이 있고, 참여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가정교회가 정착되면서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공동 식사를 특정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목장별로 준비 하도록 전환하자, 공동식사 준비가 이전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메뉴도 더 다양하게 되었다.

가정교회 사역 이후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 되었다. 가정교회와 같이 소그룹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의 장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자주 만나 서로 대화하며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으며, 이런 영적 교제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로 확산되어 선교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¹³⁵⁾

가정교회를 통해 선교의 영역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사회로 확장되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또,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가정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교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2. 비가시적(非可視的) 변화

가. 건강한 교회로의 변화

교회의 질적 성장의 현상적 증거를 연구하기 위하여 독일의 슈바르츠는 방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교회 성장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등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질적 특성이라고 말한다.¹³⁶⁾

이와 같은 임상적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게도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총장이었던 켄 험필(Ken Hemphill)이 1994년에 저술한 안디옥 이펙트 (*The Antioch Effect*)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8가지 원리¹³⁷⁾와 거의 동일하다.

이상의 두 연구는 교회의 건강성을 객관화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기준에 밴나이스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대입해 볼 때, 상당히 근접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실시하면서 겪게 된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는 교회가 더 성경적인 토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배가 소란하거나 분주하지 않고, 이전보다 은혜로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서

135)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245.

136) Schwartz, *자연적 교회 성장*, 22-37.

137) 험필 박사가 제시하는 8가지 원리는 영적 능력이 충만한 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목회자의 지도력이 확고한 교회, 영적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회, 비전이 분명한 교회,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무장시키는 교회이다. Ken Hemphill, *안디옥 이펙트 (The Antioch Effect)*, 이명희 역 (서울: 도서출판 사로 사랑, 2000).

평신도들의 사역이 역동성을 가지게 되었고, 성도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이런 교제를 토대로 가정교회는 성도간의 형제적 유대와 가족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가족이 운명공동체이듯이 가정교회를 통한 관계 역시 이러한 가족관계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여기서 진정한 가족관계란 가족들 간에 서로 책임지는 사랑(accountability)의 관계를 말한다.¹³⁸⁾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이 있으면 가족처럼 돕게 되었으며, 교회는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돌봄과 이웃사랑으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 갔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하는 자세로 변화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다. 가정교회에서도 서로 나누는 삶과 봉사의 삶 속에서 교회의 본래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 하게 되었고, 그들의 봉사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나. 제자로서의 의식의 변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다. 개인적인 제자도가 교회의 기초다(마 28:18). 가정교회는 이러한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도구이다. 가정교회를 통해 목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것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났다.

가정교회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목회자 한 사람과 교회의 소수 직분자들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조직이 이루어져 있었고, 교회의 모임들도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매월 한 번씩 모이는 속회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성도간의 깊은 교제를 경험

138) 박영철, *셀 교회론*, 281.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매주 마다 가정교회를 통해 목원들이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이후로는 목원들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질 뿐 아니라 서로의 관심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 교제의 시간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목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로 모였었다. 하지만, 서로 나눔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고, 이후에는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나누려는 사람들로 인해 가정교회의 나눔은 더 건강한 나눔과 교제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가정교회의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장이 되었고,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하는 도움의 장이 되었다.

가정교회 실시 후 성도들은 이전처럼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적극성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전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가정교회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는 남을 돌보고 돕는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이 늘어났다.

제 2 절 가정교회의 문제점

모든 제도는 완전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도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교회로 인한 위험부담과 부정적인 요소도 내재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 역시 가정교회를 실시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와 부딪히기도 하였으며, 시행착오로 인한 부담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1. 가정교회 전환으로 인한 갈등

기존 조직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교인들에게 가정교회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곁들

어겨 온 전통적 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해체를 의미했다. 때문에 새로운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두려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실험되지 않은 변화에 대해 어떤 성도들은 혹시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문제를 가정교회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하는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도전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다.¹³⁹⁾ 특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전통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새것에 대한 의혹과 혹시 신앙적으로 잘못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소수의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가정교회를 받아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서적 기초를 마련하고 신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평신도 지도자(목자)의 한계

가정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동일한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개인의 차이가 있어 신앙의 성숙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지도자가 목자가 되었을 때, 가정교회 목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성숙하지 못한 자를 목자로 세우게 되면 그 목장은 성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목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목장자체가 병들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딪히는 또 다른 문제는 평신도들 가운데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회 규모가 크다면 준비된 인재들이 많을 수 있지만, 교인에 비례해서 그만큼 많은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된 목자를 찾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교회가 작은 경우는 더 준비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경우 지도자 선정의 문제로 가정교회 자체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139)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우지는 평신도 목회*, 241.

이외에도 목자가 목장의 책임을 수행하다가 자신의 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가 섬기던 목장의 목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목장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약 이런 경우 목장 내에 부목자가 있거나 목자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목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목자가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에는 목원 전체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목자가 자신의 목장을 자신의 세력이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장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목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가정교회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의 사활은 목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경쟁과 집단 이기주의화

가정교회를 실시하면 각 가정교회로 모이는 목원들은 매주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해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속이 발전하여 가정교회 내에 형제의식이 생기고 영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의 단점은 가정교회 내에서 발생한 유대가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가정교회와의 단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교회 내에서도 자주 모이는 사람들끼리의 지나친 결속으로 인해 다른 목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소외되는 목원들이 생겨나면 그 가정교회는 건강성을 회복하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가정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집단의식 강화는 가정교회 간에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나 우월의식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다른 가정교회와의 비교나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비교는 목장을 세력화하여 자기가 속한 목장이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갖게 하거나, 다른 목장과 비교하여 더 열악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비교와 경쟁은 가정교회 본래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목장과 차별화를 위해 지나치게 노력한다면 이런 경우 목

자장인 담임목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비교나 경쟁,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날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목자 간, 대 목자와 목자, 목자와 목장 사이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목자장인 담임목회자의 강한 지도력이 요구된다.

목장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각 목장의 지도자인 목자들 간의 유대가 중요하다. 성숙한 목자가 되기 위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갖거나 영적 성장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목장간의 활발한 교류는 각 목장의 결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다른 목장과 교제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목장간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정교회 운영의 한계

목자들이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평신도 사역자들과 공유하므로 비례적으로 목회자들의 사역의 한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반면에 목자들이 책무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목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 지도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목회자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자는 대체로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 장소로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모임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담을 갖는다. 모두가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주 마다 10여명이 넘는 목원들을 대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자들은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기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자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목원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하였다.

가정교회가 모임 때마다 부모를 따라 함께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 목장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TV만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목원들의 자녀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모임 때 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정교회가 가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에게도 가정교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동이 필요하다.

이민교회에서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런데 가정교회 모임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매주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을 격주로 하는 목장도 있었다. 하지만 가정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 주일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임의 회수와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제 3 절 이민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안

지금까지의 가정교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볼 때 가정교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21세기의 새로운 목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가정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을 위한 세미나는 세계 각 곳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거나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성서적 교회상을 회복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과 정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교회 운동이 바르게 정착함으로써 가정교회를 실시하는 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정교회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제안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그 동안 지나치게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

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회들이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교회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역시 부정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를 보다 새롭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숙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가정교회는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교회의 질적 성숙과 양적 성장이라는 이상적 관계는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즉 교회의 질적 성장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가져다주고 양적 성장은 교인들의 신앙의 질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와서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 하여야 한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¹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경우가 교회의 양적 성장을 목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가정교회를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 가정교회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자세는 가정교회를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므로 경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가정교회의 본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건강한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정교회 운동이 양적 성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기대하지만, 단순히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교회 갱신 운동이며 교회 개혁운동이다. 이 점에 있어서 국제 터치 사역(Touch International)의 벅헴은 오늘날의 가정교회 운동은 종교개혁 운동이라고까지 말한다.¹⁴¹⁾

2. 가정교회로의 전환

전통적인 교회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교회로서의 건강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구조를 반드시 가정교회로 전환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 배경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구

140) 박영철, *셀 교회론*, 289.

141) William Beckhem, *The Second Reformation*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5).

조직 모순과 잘못된 전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충분한 연구와 교회의 환경과 상황을 검토한 후 가정교회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모험이 될 것이다.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할 때, 무리하게 목회자의 욕심으로만은 강행하게 된다면 많은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가정교회의 경우 평신도 지도자들 특히 목자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정교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교회 전체의 정서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정교회를 위한 사전준비 역시 중요하다.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그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 하고, 조직 구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제 6 장

결 론

한국교회는 110여년이라는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과하고 유례없는 큰 성장을 이루어왔다. 특히 1960년 이후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은 놀라운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그 성장이 둔화되고, 이어 교인 감소현상까지 보이기도 하였다.¹⁴²⁾ 이런 현상으로 인해 어떤 학자들은 미래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다라도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대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므로 역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장 이면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성장 중심과 교회 확장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은 교회의 수와 성도들을 증가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 회복이 최근의 교회 컨설팅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본래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일단의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실험되고 있다. 그 중에 2000년을 전후하여 가정교회 즉 셀 교회와 같은 소그룹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전통적 구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한 시도이며, 기독교 초기 가정교회의

142) 윤병오, “목회자 리더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115.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다.

건강한 교회와 교회의 기능과 역할 회복을 위한 시도로서 가정교회에 대한 본 연구는 약 5년에 걸쳐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가정교회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교회가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가정교회가 미래교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근거로 가정교회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성서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배경을 근거로 세계교회들 가운데 가정교회를 정착시켜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현황을 교회의 상황을 시작으로 하여 준비과정과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므로 가정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교회의 모델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정교회 사역은 준비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통하여 전통적인 교회에서 새로운 가정교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어려움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교회의 비전 공유와 조직 구성, 평신도 지도자 선발 과정,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목원들의 역할, 그리고 가정교회의 목적과 운영지침들을 다루었다. 가정교회 정착 이후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교회를 실시하면서 경험한 문제점들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정교회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소그룹 형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필요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가정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대안임을 입증해준다.

본 논문에서 가정교회가 건강한 미래교회를 위한 대안임을 밝히면서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제의 예를 많이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나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과 가정교회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개는 가정교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가정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과 예시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교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가지는 문제점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기독교백과 편찬위원회, *기독교 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김만홍,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라*, 서울: 가족사랑, 2002.
-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재판,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김신국, *21세기를 향한 목회의 비전*,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3.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 신문사, 1998.
- 김흥기, *감리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KMC, 2003.
- _____, *존 웨슬리의 회년 사상*,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1995.
- 류영모,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2.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 박영철, “버크랜드 침례교회와 목산침례교회 그 목회 철학을 본다.” *목회와 신학*, 1998년 9월호.
- 박홍래, *셀 그룹 셀 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98.
- 윤병오, “목회자 리더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 이계준, *그리스도인의 완전*, 서울: 전망사, 1994.
-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모델,” *미주 크리스찬 헤럴드*, 1998년 8월 2일자.
- 임석종,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02.
-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 연구원, 1999.
- _____, *평신도를 흥분시켜라*, 서울: 밴드목회 연구원, 2000.
- 조선혁, “한국 감리교회의 속회에 관한 연구,” Th.M. diss.,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67.
- 조종남, *요한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 조태환, *평신도를 목회의 파트너로 삼아라*.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사, 1999.
- 최상태,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 훈련원, 2003.
- 최영기, *나 이런 목사올시다*. 서울: 인영도서, 1997.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사, 1998.
- _____,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2000.
- 한상호, *직교를 통한 소그룹 부흥*.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 신학연구소, 1997.
- 홍성철, *블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4.

2 번역 서적

- Banks, Robert,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89.
- Barrett, Lois, *가정교회 세우기 (Building The House Church)*,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2.
- Berkof, Louis,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Bobb, Biehl, *멘토링 (Mentoring)*, 김성웅 역, 서울: 도서 출판 디모데, 1997.
- Cell, George Croft, *존 웨슬리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송홍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 Colson, Charles, *이것이 교회다 (The Body)*, 김애진 역, 서울: 홍성사, 1997.
- Corniskey, Joel, *셀 그룹 폭발 (Home Cell Group Explosion)*,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Dulles, Avery Cardinal, *교회의 모델 (Models of Church)*, 김기철 역, 재판, 서울: 도서출판 한국교회 연구소, 2003.
- Engen, Charles Edward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 Forst,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황을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 Hybels, Bill & Lynne,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7.
- Icenogle, Gareth W,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ve Approach)*,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4
- Khong, Lawrence, *신 사도적 셀 교회 (The Apostolic Cell Church)*, 최봉실 역, 서울: 한국 강해설교 학교 출판부, 2001.
- Louse, Barrett, *가정교회 세우기 (Building the House Church)*,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2
-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 Ortiz, Juan Carlos, *제자입니까 (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89.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정진우, 오태균 역, 서울: NCD, 1999.
- Schaller, Lyle E, *목회 혁신 (Innovations in Ministry)*, 김영실, 임종원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9.
- Slocum, Robert E, *평신도 목회의 극대화 (Maximize Your Ministry)*, 서병택, 서병채 역, 서울: 평신도 목회자 연구소, 2003.
- Snyder, Howard A, *혁신적인 교회 정신과 웨슬레 (The Radical Wesley & Patterns for Church Renewal)*, 조종남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6.
- _____, *하나님 나라의 모델 (Model of the Kingdom)*, 이철민, 이승학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9.
-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The Equipper's Guide to Every Member Ministry: Eight Ways Ordinary People Can Do the Work of the Church)*,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 _____, &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A Systems Approach to Congregation All Leadership)*,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Stockstill, Larry, *셀 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The Cell Church)*,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Thiessen, Henly C,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Wagner, E. Glenn,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Waller, Ralph, *존 웨슬리 (John Wesley: A Personal Portrait)*, 강병훈 역, 서울: 도서출판 KMC, 2004.

Watson, David Lowes, *웨슬리와 속회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한경수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86.

Williams, Collin, *존 웨슬리의 신학*, 서울: 전망사, 1983.

3. 외국 서적

Beckhern, William, *The Second Reformation*,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5.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1952.

George, Carl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Watson, David Lowes,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85.

Neighbour, Jr., Ralph W, *Where Do We Go from Here?*,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0.

Church, Leslie F, *More about the Early Methodist People*, London: The Epworth Press, 1949.

Vita of
Yong Chi Chung

Present Position:

Education Training Center of Korea Methodist Church
Director

Personal Data:

Birthdate:	May 20, 1942
Marital Status:	Married to Hae-Suk with one son and one daughter
Home Address:	9536 Via Recardo, Berbank CA 91504 USA
Phones:	(818)504-0846(US) (031)855-8010(Korea)
Denomination:	Methodist Church of Korea
Ordained:	March 20, 1971

Education:

B. A.: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68
M. Min.:	Graduate School of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1
M. Div.: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CA, 1989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5

Personal Experience:

1967 to 1971:	Pastor of Dong Mak Methodist Church, Kang Ha, Korea
1971 to 1973:	Senior Pastor of Ea-Hwa Methodist Church, Incheon, Korea
1973 to 1977:	Senior Pastor of Sun Lin Methodist Church, Incheon, Korea
1977 to 1984:	Senior Pastor of Jin Kwan Methodist Church, Seoul, Korea

1984 to 1988:	Senior Pastor of Albuquerque Korean UMC, NM, USA
1988 to 1991:	Senior Pastor of Temple City Korean UMC, CA, USA
1991 to 1998:	Senior Pastor of Glendale Korean UMC, CA, USA
1998 to 2003:	Senior Pastor of Van Nuys Korean UMC, CA, USA
2004 to present:	Director of Education Training Center of Korea Methodist Church, Seoul, Korea